

미디어한국

MEDIA HANKOOK

경희한의원
감기 / 성장 / 관절통 / 교통사고

월~토 벨뷰 425-818-8248, 11418 NE 19th St (OL 병원 위)
예약필수 린우드 425-640-7585, 3333 184th St SW (H Mart 옆)

JP INSURANCE 박정연보험
자동차, 사업체 보험, 메디케어

Tacoma 253-228-5295
Federal Way 253-335-3895

JOO FAMILY CLINIC 주 패밀리 클리닉

• 소아진료 • 부인진료 • 보톡스·필러
• 성인진료 • 노인진료

Open Hours
Mon: 9am-6pm
Tue-Fri: 8am-6pm
Sat: 8am-1pm

425.409.9247 kk@joofamilyclinic.com
www.joofamilyclinic.com
22618 Hwy 99, #106 Edmonds, WA 98026 (부한올라자)

THE ONE LOGIS, theonelogisllc.com
하나통운

후회없는 선택, 꼭 비교해 보세요!
위싱턴주 최대 한인운송업체 / 한인이사인력 운영
• 택배 • 이사 • 수,출입운송 • 창고보관 • 자체 통관사 운영

253-872-8181

굿닥터 카이로프랙틱
GOOD DR. CHIROPRACTIC

교통사고 · 디스크 · 만성요통 · 스포츠 상해 · 족관절
두통 · 척추관절 교정 및 전신 통증 치료전문

예약 전화: **425-775-7550**
19514 64th Ave. W Suite Lynnwood, WA 98036



“이민자 허슬 아는 리더”

범한인사회, 한인 2세 브라이언 서랫 시애틀 부시장 취임 축하리셉션 열어
지난 11일 저녁 시애틀 다운타운 트리플 도어 내 뮤직큐아리움 라운지에서

지난 11일 저녁 시애틀 다운타운 트리플 도어 내 뮤직큐아리움 라운지에서 한국인 어머니를 둔 한인 2세 브라이언 서랫 시애틀 부시장의 취임 축하리셉션을 열어 축하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시애틀코리아데일리> <관련기사 Page-27>

K-beauty FIND YOUR BEAUTY

화이트 태닝 Red Light Therapy
피부에 조명을 쬐다!!

페더럴웨이점 206-670-8654
린우드점 425-561-7866

몽골 직수입 최고급 순모 SLEEPING CAMEL
특상급 명품 쌍봉낙타 순모

Premier Wool
VVIP 고객들의 재구매율 1위제품

타코마: 253.227.8586
페더럴웨이: 253.232.9277
린우드: 206.670.8654

세상을 바꾸는 작은 힘
Haninsosik

로컬뉴스, 미주뉴스, 한국뉴스, 전문가칼럼,
여류시장 등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
haninsosik.com을 방문하시면
전자신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믿고 상담할 수 있는 친절한
김양미 보험

다년간 의료
통역 경력

커다란 변화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더 잘 맞는 플랜이 있는지 상담하고자 하시는
분은 전화로 예약하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립니다.”

206-679-8301
getcare8282@gmail.com

메디케어전문
등록기간
10월15일~12월7일

- ✓ Medicare
- ✓ Medicaid
- ✓ Tricare care for life specialist
- ✓ ACA(오바마케어)

Best Choice REALTY

■ 주택

■ 비즈니스

■ 커머셜

■ 상담환영



살때도, 팔때도!



권미경 부동산

253.335.5301

Managing Broker MiMi Kwon

E: mimibestchoice@gmail.com

www.homesnap.com/Mikyoung-Kwon

YouTube 권미경부동산

Facebook: Mimi Kwon
Instagram: Mimikwon

Tumwater \$489,000



3 beds / 2 bath • 1,410 sqft

프라이빗 1.25에이커 단층 주택으로 모던한 전원 라이프를 누리면서도 1-5·쇼핑·코스트코 접근이 뛰어난 투머워 학군 내 희소 매물.

Tacoma \$550,000



3 beds / 2 bath • 1,582 sqft

잘 관리된 3베드·2베스 램블러, 최신 지붕·주요 업그레이드 완료. 넓은 보너스룸, 큰 마당까지 갖춘 조용한 동네의 즉시 입주 가능

Spanaway \$499,950



3 beds / 2 bath • 1,680 sqft

게이트 커뮤니티 세도나 내 3베드·2욕실 단층 주택으로, 오픈 플랜과 최근 리모델링을 갖춘 조용하고 접근성 좋은 실거주 최적 매물.

Seattle \$288,000



1 beds / 1 bath

유니버시티 디스트릭트 중심 1920년대 복원 콘도로, 렌탈 제한 없는 1베드+오피스 구조에 입지·수익성·클래식 감성을 모두 갖춘 희소 매물.

Olympia NEW \$475,000



3 beds / 3 bath • 1,184 sqft

2카 차고 트라이레벨, 2018년 주요 리모델링 완료로 즉시 입주 가능. 퀴즈 주방, 스테인리스 가전, 미니스플릿 냉난방, 침실별 천장팬 포함. 넓은 펜스 마당·RV 주차·커버드 파티오, 1-5·JBLM·학교·쇼핑 인접.

NEW Rent \$2,800/월



미용실 하던 곳으로 마사지샵이나 어떤 용도로도 사용 가능, 교통량이 많고 큰거리에서 쉽게 보이는 곳

Bellevue \$2,595,000



4 beds / 3 bath • 3,692 sqft

1920년대 크래프트맨 감성에 맞춘 전면 업그레이드 주택, 화이트오크 바닥·스테인드글라스·양면 벽난로·프렌치도어 등 클래식 디테일 완벽, 호숫가 끝자락의 조용한 위치, 리모델링된 주방과 레이크뷰 프리미엄 주택.

Newcastle \$2,479,900



5 beds / 4 bath • 3,244 sqft

고급스러움이 돋보이는 Alterra 주택, 메인하우스+별도 게스트 스위트(홈오피스 활용 가능) 포함한 5베드 구조, 고메 키친, 프라이머리 듀얼 워크인 클로징, 대형 로프트, 커버드 야외공간까지 갖춘 고급 설계의 신축급 매물.

NEW Office Rent \$1,650/월+NNN



office room 5, 화장실, 주방 구비



박 · 쉬나 합동법률사무소

PARK CHENAUR AND ASSOCIATES
ATTORNEYS AT LAW

지금 전화하세요

대표전화

253-839-9440

www.parkchenaur.com



김벌리 윤

사무장

24년 이상 경력

253.344.7488



지나 김

사무장

16년 이상 경력

206.498.6040

오피스 시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사무장과 상담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 개인상해

Car Accidents

Personal Injury

법정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능숙한 변호사들!

고객을 가족같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켜드립니다.

페더럴웨이 오피스:

2505 S 320th St. #100 Federal Way WA 98003
(320가 1-5 옆 검은색 유리빌딩 1층)

타코마 오피스:

3517 6th Ave. Tacoma, WA 98406



WASHINGTON
Education Institute



워싱턴 학원



**[애프터 스쿨 (Kindergarten ~ K8)
진학반 (K9 ~ K12)]**

- ✓ 15,000 sf : 20개 교실
- ✓ 학교픽업 서비스 (스쿨버스운행)
- ✓ 주 5일수업
- ✓ 방학 프로그램
- ✓ 특별활동
- ✓ 간식제공
- ✓ 선착순 예약 (정원이 차면 대기)
- ✓ 외국어교실



**English
Math**



**K-POP
D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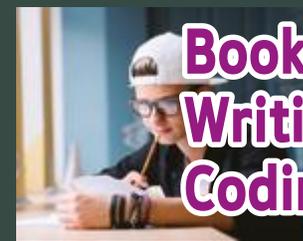
**School Bus
Pickup**



Music



Art



**Book Club
Writing Club
Coding**

**15405 SE 37th St
Bellevue, WA 98006**



(425)520-0221
washingtoneducationinstitute.com

조선용 보험 에서 알려드립니다.



메디케어 안내 - 지금 확인하세요!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 보험 프로그램

■ 메디케어 구성 안내

- 파트 A - 병원/입원 보장
- 파트 B - 외래진료, 검진 등 의료 보장
- 파트 C - 메디케어 어드벤처지 플랜 (파트 A와 B를 민간 보험사가 대신 관리, 추가 혜택 포함 가능)
- 파트 D - 처방약 보장

■ 메디케어 어드벤처지 처방약 플랜 (MAPD)

- ☞ 파트 A, B, D 보장 ☞ 보험료 \$0부터 가능
- ☞ 최대 본인 부담금 도달 후 100% 보장
- ☞ 다양한 보장 수준과 약 코페이
- ▶ 단, 의사 네트워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또는 오리지널 메디케어 + 서플리먼트 플랜 조합도 선택 가능

■ 보험 등록 기간

- 초기 가입 기간: 65세 생일 기준 전후 3개월 포함 총 7개월
- 연중 가입 기간 (10/15-12/7): 새 플랜 가입 또는 변경,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작
- 오픈 가입 기간 (1/1-3/31): 현재 어드벤처지 플랜 변경 또는 오리지널 메디케어 전환 가능, 약보험 등록 가능
- 특별 등록 기간: 이사, 퇴직 등 생활 변화 발생 후 2개월 내 변경 가능

■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 약보험 보조 프로그램

- 자격이 된다면 보험료 보조 가능!
- 듀얼 플랜 가입으로 추가 혜택 제공
- 근로소득이 있다면 수입 기준 완화 혜택

■ 가입 전 확인사항

- 주치의, 병원, 약국 계약 여부
- 복용 중인 약이 모두 보장되는지
- 1년간 약값 총 부담금 비교



조선용 보험 에서는 메디케어 신청부터 메디케어 비용 보조 프로그램도 함께 도와드립니다.

425-951-9210

(주내과 옆)

4713 168th St SW Ste 103 Lynnwood, WA 98037



한복 입고 큰절, 체육관에서선 합성

페더럴웨이 한국학교, 지난 2월 14일 '설맞이 한마당잔치' 개최 8년 자원봉사 저스틴 스미얼스씨 시애틀한국교육원장 표창 받아

페더럴웨이통합한국학교(교장 이재은·이사장 박영민)가 설을 맞아 2월 14일 교사(校舍)인 TAF@A=Saghalie(33914 19th Ave SW, Federal Way)에서 설날 한마당잔치를 열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는 물론 지역 주민까지 참여해 예년보다 풍성한 명절 분위기를 이뤘다.

체육관에서는 한복을 차려입은 학생들이 이사장 박영민 이사장, 이재은 교장, 이용욱 시애틀한국교육원장, 이희정 전 교장, 고종제 코앰TV 사장에게 세배를 올렸다. 다소 서툴러도 두 손을 모으고 큰절을 하며 새해 인사를 전한 학생들에게는 따뜻한 덕담과 세뱃돈이 건네졌다.

세배가 끝난 체육관은 곧바로 열린 놀이마당으로 변했다. 줄다리기와 활쏘기, 윷놀이가 동시에 진행됐다. 전교생은 물론 교사·보조교사·학부모까지 한 줄에서 힘을 모은 줄다리기에서는 팽팽한 접전이 이어졌고, 승부가 갈릴 때마다 환호가 체육관을 뒤흔들었다. 윷놀



학생들이 세배를 하고 있다.

이대회는 토너먼트 형식으로 팀당 2명이 참여했으며 가족이 돌아가며 참여하고 응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1위부터 6위까지 상품이 수여됐으며, 아시안 식료품업체 위(weee)가 후원한 한국 식료품과 시애틀한국교육원이 제공한 한국 전통 물품이 수상자들에게 전달됐다.

카페테리아에서는 투호던지기와 제기차기, 팽이치기 체험이 진행됐다. 처음 제기를 잡아보는 아이들이 몇 번이고 이어 차며 친구들과 경쟁했고, 투호 화살이 통에 꽂힐 때마다 탄성이 터졌다. 학부모들이 정성껏 준비한 떡과 떡볶이도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명절의 정



세배를 받은 참석 인사들과 세뱃돈을 받은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겨운 풍경을 연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용욱 시애틀한국교육원장이 8년간 이 학교에서 자원봉사로 헌신해 온 저스틴 스미얼스씨에게 교육원장 표창을 수여하는 뜻깊은 순간도 있었다. 수상자에게는 참석자들의 아낌없는 박수가 쏟아졌다.

이재은 교장은 세배를 통해 한국 전통 명절의 예법을 배우고 전통놀이와 음식으로 문화를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행사에 애써준 학부모·교사와 함께해준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사를 전했다. <기사=시애틀코리아데일리, 사진=KOAM 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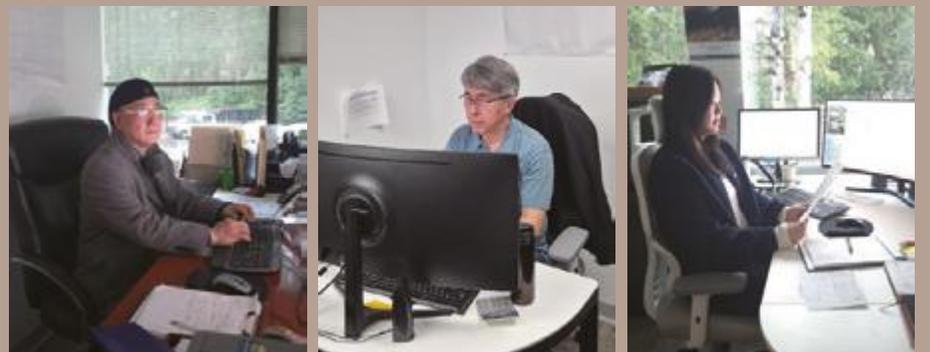
사고로 부상을 입으셨나요? 저희는 최대한의 보상을 위해 끝까지 싸웁니다.



📌 Auto Accident Personal Injury (교통사고/개인상해)

📌 Immigration Law (이민법)

📌 Speeding/DUI (속도위반/음주운전)



**경력 많은 전문 변호사 2인이
교통사고·이민법을 집중 대응합니다.**

사고 피해, 억울하게 당하지 마세요

- ▶ 최대 보상, 끝까지 책임집니다
- ▶ 무료 상담 | 성공보수제
- ▶ 승소 전까지 비용 부담 ZERO

Joseph Sim(Director) : 253-222-8888 after hours WWW.ACCSEATTLE.COM

Main 오피스: 206-414-2750 / 팩스: 888-844-7339 ADLG.FED@GMAIL.COM

바이어 고객님들

광고 이외에도 알짜 매물이 많습니다.

셀러 고객님들

합리적인 수수료와 최고
가격으로 팔아드립니다.

일매상 1,000

South 테리아끼 9만불

- ▶ 점심장사 현재 안하고 있음
- ▶ 저렴한 렌트비 ▶ 깔끔 인테리어
- ▶ 부부가 직접 운영 추천드립니다

햄버거 식당 15만불

- ▶ 최근 일매상 1,400 ▶ 종업원으로만 운영중
- ▶ 부부가 직접 운영하면 안정적 생활비
- ▶ 대로변 좋은 위치, 저렴한 렌트비

맞춤상담 받아보세요!

엠마 부동산

좋은 매물이 항상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있으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고객님께 맞춤으로 안내해드립니다.

Emma Park 206-688-0780 | Emmapark0780@gmail.com

시애틀한국문화센터

즐거움이 시작되는 노래방 문화센터 오픈!

노래교실 동호회 **월요일** 11시~12시 

생활영어 **일요일** 5시~6시30분 

난타 **금요일** 1시 

라인댄스 **목요일** 10시/11시 

스페인시 클래스 **수요일** 10시 

컴퓨터 **월요일** 10시30분~12시 

라중바 댄스 **화·토** 10시~11시 

[강사 초빙]
지금 바로 문의하십시오.
시니어 분들께 재능과 시간을 나눠주실 강사님을 모십니다

- ▶ 전문 기술자: 현장 실무 관련 강의 가능하신 분(예:냉동, 전기,컴퓨터)
- ▶ 음악/예술: 악기를 다루시는 전공자 (예:피아노,바이올린,첼로,드럼, 미술)
- ▶ 그 외: 어떤 분야든 교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한 콘텐츠를 가진 분

재봉틀 **시간미정** 

< 싱글모임 2월 20일 금요일5시 >

“지치고 외로운 당신을 위로하세요”

미국 생활 수십 년, 이제 당신의 곁을 채워줄 소중한 인연을 만나세요” 이국땅에서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조금 살만해졌는데, 문득 찾아오는 외로움에 마음 둘 곳 없으셨나요? 사별과 이혼의 아픔을 겪고 다시 시작할 용기가 필요한 분들을 모십니다.

- 누가: 마음의 휴식이 필요한 중장년 싱글 남녀 ■ 어디서: 새소망교회 (신앙과 관계없이 누구나 환영합니다)
- 무엇을: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들과의 대화, 그리고 새로운 인연 찾기
- 특징: 편안하고 재미있는 분위기 속에서 이미 수차례 모임이 있었고 좋은 커플과 좋은 친구사이드들이 탄생할것입니다.

시애틀한국문화센터

31411 6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문의 및 등록: 206-759-0125



제3차 미주서부 KCBMCUSA
2026
MAY 7~MAY 9

대회 Seattle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
(로마서 12: 2)

주
강
사



오경현 목사
학교법인 숭실대학교 이사장
서울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권 준 목사
전 서울 은누리교회의 부목사
시애틀 핑계교회 담임목사



김요셉 목사
중앙기독교학교의 이사장
수원 원정침례교회 담임목사

말씀과전도, 양육

FEDERAL WAY PERFORMING
ARTS & EVENT CENTER

31510 Pete Von Reichbauer Way
S., Federal Way, WA 98003

Come & See ! Kingdom Of God



4박5일 선착순 200명 모집
알래스카 3대빙하관광

관광내용: 숙박4박5일 ▶ 바다, 산
육지빙하관광 맥켄리 경비행기/트램



5박6일 선착순 100명 모집
'캐나다 힐링 투어'

관광내용: 숙박 5박6일 ▶ 장수마을
캠모어, 설산 밴쿠버+록키산맥 투어



투어 일정



CBMC 미주서부총연합회

오윤호총회장 (206) 769-4141 서용환 서북부연합회장 (206) 919-3748
윤요한부회장 (907) 884-1080 최명희시애틀지회장 (206) 227-0700

시애틀한국교육원, '2026 KIDS K-서머캠프' 참가자 모집

7월 27일~31일 페더럴웨이서 개최...1~6학년 대상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주 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 산하 시애틀한국교육원(원장 이용욱)이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한 '2026 KIDS K-서머캠프' 참가자 모집에 나선다. 교육원에 따르면 이번 캠프는 오는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페더럴웨이에 위치한 미러레이크 초등학교(Mirror

Lake Elementary School)에서 진행된다. 대상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이며, 참가비는 1인당 200달러다. 참가 등록은 오는 2월 23일(월)부터 시작된다. 캠프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

통문화 체험과 팀 활동, 놀이형 수업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래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애틀한국교육원 측은 "K-서머캠프는 차세대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즐겁게 배우며 정체성을 키울 수 있도록 기

획된 행사"라며 "관심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애틀한국교육원은 매년 다양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한국어 교육과 문화 확산의 거점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K-beauty FIND YOUR BEAUTY
화이트 태닝 Red Light Therapy 피부에 조명을 쬐다!!
페더럴웨이점 206-670-8654 / 2150 S 314th St Federal Way, WA 98003
린우드점 425-561-7866 / 18420 33rd Ave W Unit 26, Lynnwood WA

메디케어 보험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메디케어 가입
플랜에 따라 혜택도 다릅니다.
꼼꼼히 살펴보고 가장 좋은
플랜으로 선택하세요!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상담받으세요'
플랜변경 기간입니다
성실하고 친절하 에이전트들에게서
무료로 자세한 서비스를 받으세요



단계. 1
일반 메디케어에
가입하십시오.

일반 메디케어 (연방 정부에서 제공)

파트 A 병원 입원 및 입원 진료 비용 지불에 도움	파트 B 의사 방문 및 외래 진료 비용 지불에 도움
-------------------------------------	-------------------------------------

선택사항 1 또는 선택사항 2
일반 메디케어에 다음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추가합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선택하십시오.

메디케어 보조 보험 플랜 (민간 회사에서 제공) 일반 메디케어에 수반되는 회원 지출액 일부에 대한 비용 지불에 도움을 줍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민간 회사에서 제공) 파트 C 파트 A (병원보험) 및 파트 B (의료보험)를 하나의 플랜에서 통합합니다. 파트 D 보통 처방약 혜택이 포함됩니다. 일반 메디케어가 제공하지 않는 추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D 플랜 (민간 회사에서 제공) 파트 D 처방약 비용 지불에 도움	

단계. 2
귀하에게 추가적인 혜택이 필요한지 결정하십시오.
추가 혜택을 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계. 3
저희에게
말겨 주시면
됩니다.

메디케어,
건강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사업체보험
무엇이든 대답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정연 종합보험
Federal Way 253-228-5295
Tacoma 253-335-3895
jpinsurance.us@gmail.com
JP INSURANCE

온정숙 종합보험
Cell 253-353-9730
Office 253-503-6441
jungvaughn62@comcast.net
VAUGHN Insurance Services, LLC

패티임 보험
Cell 253-632-8904
Office 253-335-3895
girlpatti1@gmail.net

이백희 메디케어 전문보험
Cell 253-228-7006
bkins,medicare@gmail.com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힘내세요! 함께 이겨내요! 😊

이영이보험

- ✓ 곧 65세가 되십니까?
- ✓ 직장보험이 종료 되십니까?
- ✓ 타주에서 이사오셨거나 거주지가 바뀌셨습니까?
- ✓ 파트 D(약보험)으로 Extra Help를 받으십니까?
- ✓ Medicare와 Medicaid를 소지 하셨습니까?

* 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스페셜 가입기간에
Medicare Advantage(Part C)나
보충 보험을 가입하시거나,
다른 플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욱
친절한 상담과 안내로
다양한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영이 보험이 여러분의
올바른 메디케어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
상담전문**

Licensed Insurance Agent
206.407.8478
206.250.2760
youngyi712@gmail.com

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
라이선스 보유



coway

코웨이 제품
판매하실 세일즈
프리랜서 분들을
모집합니다.

주방 공간에 맞게

미니멀한 사이즈로
카운터탑과 언더싱크에 어디든

전기 없이 간편하게, 공간에 맞춰 설치하는
코웨이 스위치 정수기

P-2201N / P-2211N



간편한 작동법

추출 핸들을 돌리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조작법

전기세 걱정 ZERO

무전원으로 전력소모 없이
전기요금 없이 사용!

2월 공보 프로모션

기간 : 2026년 1월29일~2월26일

콤보 1 신제품 정수기 + 청정기 실속 콤보



Total 월 40불대 부터 최대
36개월간



- 주문조건 : 신제품 정수기 1건 6년 신규렌탈 + 청정기 1건 6년 신규렌탈 시
- 해당 제품 : P-2201N-WT, P-2201N-GR, P-2211N-GR, AP-1018F, AP-1523D
- 혜택 : - 정수기 : 1) 신제품 정수기 6년 신규 자가 렌탈 시, 36개월동안 렌탈료 3불 할인 OR 2) 신규 6년 방문렌탈 시, 4개월 렌탈료 50% 할인
- 공기청정기 첫 36개월 동안 렌탈료 10% 할인 (26년 3월부터 36개월간)



해당 정수기
6년 신규 렌탈시,

최대 8개월
50% 렌탈료 무료

- 혜택 : - CHP-6330L 6년 신규렌탈 시, 8개월 렌탈료 50% 할인(26년 3월~10월)
- 프리미엄 정수기 6년 신규렌탈시, 4개월 렌탈료 50% 할인(26년 3월~6월)
- 해당 제품 : CP-6330L, CHP-6330L, CHP-5710L, CHP-5722L, CHP-7520L, CHP-620L-PLUS



콤보 2

26년 3월부터
36개월간

공기청정기
50% 할인

- 주문조건 : 해당 정수기 1건 6년 신규렌탈 + 청정기 1건 6년 신규렌탈 시
- 혜택 : 26년 3월부터 36개월 동안 렌탈료 50% 할인
- 해당 제품 : AP-1523D, AP-2021A, AP-2023K, AP-3018B



콤보 3

26년 3월부터
72개월간

비데
월 \$17.99

- 주문조건 : 해당 정수기 1건 6년 신규렌탈 + 비데 1건 6년 신규렌탈 시
- 혜택 : 약정기간 72개월 동안 월 렌탈료 \$17.99
- 해당 제품 : BA-13, BAS-22, BA-42, BAS-42

자세한 사항은 판매인에게 문의바랍니다. 본 프로모션은 당사의 사정에 의해 별도의 고지 없이 내용이 변경되거나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프로모션의 최종 해석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본 디자인은 당사에 귀속된 지적재산권이며, 코웨이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을 금지합니다.

공식 판매사 H MART 린우드 / 타코마 팔도 월드 / 오레곤 G마트
H MART 페더럴웨이 / 타코마 아토미 센타 coway

코웨이
이애틀 지점

253-220-8893

34012 9th Ave S #C3 & C4, FEDERAL WAY, WA 98003

이전 & 그랜드 오픈 기념

매장 방문 주문 고객대상
감사 사은품을 드립니다.

쿠폰

H MART 페더럴웨이 & 린우드



드림투어
Cruise & Travel
꿈같은 여행을 드림, 드림투어

31434 Pacific Hwy S Federal Way WA 98003
206-200-3113 페더럴웨이 H마트 건너편
(전화/문자 상담 가능)

TALK 카톡으로 빠른 상담하기
실시간상담
드림투어



최저가 항공권

맛! 항공권이 인터넷보다 싸다!!
KOREAN AIR DELTA ASIANA AIRLINES

● 크루즈 ● 항공권 ● 투어 ● VIP의전 ● 연수 ● 버스대절

5월3일 출발 9박 10일 서유럽 완전일주 **Last Call 마감임박**

생각만해도 가슴 설레이는 Best 유럽여행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바티칸)

- ▶ 전일정 4성급 호텔 숙박, 모든 옵션 포함
- ▶ 서유럽에서 맛봐야 할 요리, 특식제공
- ▶ 유럽의 지붕, 융프라우 등정
- ▶ 로마 안에 작은 도시 바티칸 시국 관광
- ▶ 이탈리아 로마 벤츠투어 포함!

\$4,290
시애틀 왕복 항공,세금포함

5월14일 출발 10박 11일 서지중해 크루즈

지중해의 푸른 바다와 유럽의 낭만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바르셀로나(스페인)/팔마데마요르카(스페인)/마르세유(프랑스)/아작시오(프랑스)
산타마르게리타(이탈리아)/제노바(이탈리아)/피렌체(이탈리아)/로마(이탈리아)

- ▶ 바티칸 포함! / NO 옵션
- ▶ 특식제공 / 4성급 호텔 숙박
- ▶ 전일항해 없이 짝찬 일정
- ▶ 이탈리아 로마 벤츠 투어 포함!

\$4,299
시애틀 왕복 항공,세금포함

6월8일 출발 동유럽 핵심 7개국 14일 **BEST CHOICE 강력추천**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 ▶ 동화 속 작은 호수마을 할슈타트
- ▶ 낭만의 도시 프라하
- ▶ 유람선 포함
- ▶ 가장 아름다운 야경,다뉴브강

\$3,599
+ 항공

6월8일 출발 동유럽 핵심 4개국 9일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2,599**
마치 동화 속에 있는 듯한 여행 + 항공

“크루즈 여행은 크루즈 전문가에게”

전세계 크루즈 최저가 티켓 드림투어에서 예약
2026년 더 다양한 일정으로 돌아온 꿈같은 크루즈 여행!

크루즈 여행은 역시 드림투어

오직 드림투어라서 가능한 트로트 크루즈

남진 크루즈 **5월12일 출발**

한국/일본 5박 6일

- ▶ 원조 트로트 거장 남진
- ▶ 스타초대석
- ▶ 맥주 무제한
- ▶ 무료서늘제공

미스터트롯 크루즈 **5월27일 출발**

한국/대만/일본 5박 6일

- ▶ 트롯 황태자 김용빈, 트롯계의 미소천사 나상도
- ▶ 무궁무진한 트롯가수 남궁진, 국민 손자 남승민

국제 크루즈 연맹 인증 크루즈 전문 여행사 드림투어의 Partner 선사





청매실



330g

홍쌍리 청매실 농축액

\$149.99

섭취량 및 섭취방법
1일 1회,
1회 3g 정도(숟갈 하나)
그냥 섭취하거나
음용수에 희석하여
꿀이나 기타 감미료를
혼합한 뒤 섭취

홍쌍리 청매실 농축액은 정성스럽게 재배한 매실을 씨앗 분리기에서 씨를 분리시키고 100% 매실즙만으로 가용성 고형분을 75% 이상으로 고농축 시킨 후 전동용기에서 숙성시킨 제품입니다.

홍쌍리 청매실원은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매실을 올리고당과 7:3 비율로 배합하여 50년 이상된 전통 항아리에 넣어 발효 숙성시켜 만든 매실 원액으로서 몸에 이로운 구연산 등 각종 유기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가족 누구나 쉽게 마실 수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420ml x 2병

홍쌍리 청매실원 선물세트 2호

\$33.95



1.5Lt

홍쌍리 청매실원

\$54.95



420ml

홍쌍리 청매실원

\$19.95



홍쌍리 청매실



300g

젤리골드
\$5.99



300g

캔디골드
\$5.99

매실의 효능

- 피로회복
- 체질 개선
- 간장보호 및 간기능 향상
- 해독작용
- 소화불량, 위장장애 해소
- 갈증 해소
- 칼슘 흡수율 증가
- 살균, 살충작용
- 만성 변비
- 피부 미용
- 염증 제거



타코마 신신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하실 세일즈를 구합니다. Email : twin0418@aol.com

또는 이력서를 가지고 내사바람

안락아도 싸게 파는
신신백화점 8726 South Tacoma Way
Lakewood WA 98499

구입문의

월-토: 10AM-7PM / 일: CLOSED

253-582-2975



권정종합보험 메디케어



대표 권 정

- 1. 최고의 서비스 Best Service**
한국어 전용 클레임 서비스
- 2. 최저의 보험료 Best Price**
여러 회사와의 비교로 인한 최저 보험료
- 3. 최고의 회사들 Best Companies**
A 급이상 보험회사들로 견적비교



65세 다가오십니까?

귀하에게 적합한 메디케어 플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올해 65세(1961년생)가 되시는 분들
- 직장보험에서 나와 메디케어를 받으시는 분
- 타주에서 이사오신 분 / 거주지가 바뀐 분
-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계신 분



SBI SEATTLE BEST INSURANCE INC
시애틀 베스트 종합보험

TACOMA OFFICE

9122 SO TACOMA WAY #108 LAKEWOOD, WA 98499
Fax. 253.473.1214
jeonghee@seattlebesti.com

Tel. 253.472.3977

LYNNWOOD OFFICE

18623 HWY 99 SUITE #240 LYNNWOOD, WA 98037
Fax. 425.741.3300
johnkwon@seattlebesti.com

Tel. 425.741.3600



2026 KOAM-TV
편성표 2월23일(월)~3월1일(일)

KOAM TV 공개홀 대여가능 (최대 205명) 컴케스트 리미티드 케이블 \$15 - 20 + 코엠 월 \$14.99

일	토	금	목	수	화	월	일		
5	KTV 뉴스					KTV 뉴스		5	
6	종교	종교	종교				김학중 목사	6	
7	KTV 뉴스					KTV 뉴스		7	
8	기분 좋은 날	KO-AM 뉴스					기분 좋은 날		8
9	나 혼자 산다 (재)	영성교회	영성교회	영성교회	영성교회	영성교회	영성교회	9	
10	타코야 침례교회	첫 번째 남자					오늘 아침		10
11	비디오 여행	기분 좋은 날					기분 좋은 날		11
12	엄마를 부탁해 (재)	실화탐사대	판사 이한영 (재)	판사 이한영 (재)	판사 이한영 (재)	극한 84	엄마를 부탁해 (재)	12	
13	네트워킹 특선	전지적 참관 시점 (재)	놀면 뭐하니 (재)	복면가왕 (재)	결혼 지옥 (재)	어영자 바다야	네트워킹 특선	13	
14	구해줘 홈즈	MBC 뉴스 투데이					KTV 뉴스		14
15	MBC 드라마	KTV 뉴스					MBC 뉴스 투데이		15
16	MBC 드라마	MBC 드라마					MBC 드라마		16
17	MBC 드라마	MBC 드라마					MBC 드라마		17
18	복면가왕	MBC 뉴스 투데이					MBC 오늘 저녁		18
19	복면가왕	첫 번째 남자 (재)					첫 번째 남자 (재)		19
20	극한 84	KO-AM 뉴스					KO-AM 뉴스		20
21	MBC 뉴스	MBC 드라마					MBC 드라마		21
22	타나는 TV	전지적 참관 시점	MBC 드라마	실화탐사대	라디오 스타	판사 이한영 (재)	결혼 지옥	22	
23	기분 좋은 날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기분 좋은 날	PD 수첩	결혼 지옥	기분 좋은 날	23	
24	오늘 아침	기분 좋은 날					기분 좋은 날		24
1	오늘 아침							1	
2								2	
3								3	
4								4	

* 방송국 사정에 따라 기금 또는 특별 편성으로 프로그램 편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뉴스, 보도 교양, 다큐 드라마 오락 특집방송 종교



KOAM 프로그램을 "MOBILE" 에서 만나보세요!

· Xfinity 스트리밍 앱 다운로드 후
KOAM Ch. 257을 찾으세요

Comcast. 한국어 방송문의: 855-955-1121

KOAM TV 방송문의: 253-946-5537

· 실시간 시청 가능!



남성삼 신임 회장(왼쪽에서 2번째)과 김순희 부회장(왼쪽), 허정행 부회장(오른쪽)이 1등을 차지한 홍명란씨와 2등 곽유화, 임복자씨에게 상품을 전달하고 있다.



한 노래자랑 참가자(왼쪽) 김성배씨의 기타반주에 맞춰 노래를 뽐내고 있다.



참석 회원들이 흥겨워하고 있다.

페더럴웨이 상륙회, 신임 회장 취임 및 설 맞이 노래자랑 개최

3년 임기 마친 정영옥 회장 이어 남성삼 회장이 제42대 수장으로 취임
2월 17일 커뮤니티 센터서 노래 경연·라인댄스 등 다채로운 행사 열려

워싱턴주 페더럴웨이 지역 한인 노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해온 '상륙회'가 새로운 회장을 맞이하며 활기찬 새해의 문을 열었다.

지난 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페더럴웨이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제42대 남성삼 신임 회장의 취임식과 함께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기념하는 노래 자랑 대잔치로 꾸며졌다.

지난 3년간 상륙회를 위해 헌신해 온 정영옥 회장의 뒤를 이어 제42대 회장으로 남성삼 회장이 취임했다. 상륙회는

취임식 직후 설날을 맞아 회원들이 함께 모여 노래와 춤으로 소통하는 흥겨운 잔치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새로운 회장단의 출발을 알리는 동시에,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행사에는 80여 명의 상륙회 회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회원들은 먼저 국민 보건 체조로 몸을 풀며 건강을 다진 뒤, 곧바로 노래 경연 대회에 돌입했다. 김영남, 김경, 김성배 트리오의 생동감 넘치는 음악 연주에 맞춰 총 11명의 출연자가 평소 갖고있던 실력을 뽐냈다. 치열한 경합 끝에 홍명란 회원이 대망

의 1등 상을 차지했으며, 곽유화, 임복자 회원이 각각 2등의 영예를 안았다. 이외에도 모든 출연자에게 푸짐한 참가상이 돌아가 승패를 떠난 즐거운 축제가 이어졌다.

축제에는 맛갈스러운 떡국이 준비되어 고향의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 사회의 든든한 지원도 행사를 빛냈다. 에이스 보험의 김승용 이사장, 은누리 약국의 구자건 이사, 라디오 한국의 서정자 사장의 특별 후원은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또한 특별 초청 가수로 나선 릴리 장의



행사 모습.

무대는 행사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그녀의 구성진 노래 가락은 모인 회원들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선사했다. 새롭게 출범한 남성삼 회장은 부회장 김순희·허정행 씨와 함께 55세 이

상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라인댄스, 줌바댄스, 빙고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매주 화·목요일 운영하며 지역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약속했다. <시애틀코리아데일리>

미디어한국 MEDIA HANKOOK

스포츠서울USA Sports Seoul SEATTLE

WOMAN'S

MEDIA GROUP CORP.

세상을 바꾸는 작은 힘

haninsosik.com

BUSINESS FOR SALE BY OWNER

SELLER 와 BUYER의 직거래 광고입니다.

<p style="font-size: 1.5em; font-weight: bold;">Dry Cleaner</p> <p>매매가: \$300,000</p> <p>연매상: \$400,000</p> <p>렌트: \$5,260</p> <p>지역: 페더럴웨이</p> <p>문의: 253-334-9042</p>	<p style="font-size: 1.5em; font-weight: bold;">Dry Cleaner</p> <p>매매가: \$400,000</p> <p>연매상: \$500,000</p> <p>렌트: \$6,700</p> <p>지역: W. Seattle</p> <p>문의: 206-313-1981</p>	<p style="font-size: 1.5em; font-weight: bold;">Dry Cleaner</p> <p>매매가: \$320,000</p> <p>연매상: \$420,000</p> <p>렌트: \$4,500</p> <p>지역: 커크랜드</p> <p>문의: 425-647-9005</p>	<p style="font-size: 1.5em; font-weight: bold;">Teriyaki</p> <p>매매가: \$150,000</p> <p>월매상: \$35,000</p> <p>렌트: \$4,250</p> <p>지역: Monroe</p> <p>문의: 425-273-4357</p>
---	--	--	--

사업체 매매 무료광고 문의: 206.229.6229 / E-mail:4989seattle@gmail.com

KW COMMERCIAL

TOP 10%
REAL ESTATE PRODUCER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이한나 부동산

주택 / 사업체 / 상업용 상가임대



Hanna Lee

Seller 특전
사업체 매매를 원하십니까?
MLS/CBA/BizBuySell
동시광고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6.422.4328
hannalee@kw.com
hannaleerealestate.kw.com

식당전문

이원규 부동산

253.941.4989 | 206.229.6229
wonlee@metrospi.com



초당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

테리야끼

1. Auburn	일매상	\$1,700	렌트	\$7,500	\$15만
P Marysville	일매상	\$1,800	렌트	\$2,700	\$18만
3. Shoreline	일매상	\$1,200	렌트	\$5,100	\$13만
4. Seattle	일매상	\$2,200	렌트	\$3,800	\$25만
5. Kent	일매상	\$3,500	렌트	\$8,500	\$50만
6. Kent	일매상	\$1,800	렌트	\$3,900	\$18만
7. Seattle	일매상	\$600	렌트	\$2,300	\$7만
8. Everett	일매상	\$1,500	렌트	\$2,750	\$18만

햄버거/델리

1. Kent	일매상	\$2,000	렌트	\$6,000	\$25만
2. Bothell	일매상	\$900	렌트	\$4,100	\$9만

한식/일식/중식당

1. Seattle	일매상	\$2,000	렌트	\$3,200	\$16만	한식당
P Bellevue	일매상	\$4,000	렌트	\$8,500	\$65만	한식당
3. Redmond	건평	3,000sf	렌트	\$11,500	\$25만	한식당
4. Edmond	일매상	\$1,500	렌트	\$3,400	\$20만	한식당
5. Tacoma	일매상	\$4,000	렌트	\$4,500	\$55만	한식당
6. FederalWay	일매상	\$2,000	렌트	\$3,200	\$20만	한식당
7. Gig Harbor	일매상	\$4,500	렌트	\$10,500	\$65만	일식당
8. Kent	일매상	\$1,200	렌트	\$2,900	\$12만	일식당
P Kent	월매상	\$8만	렌트	\$9,500	\$18만	일본 라멘
10. Edmond	일매상	\$2,000	렌트	\$4,200	\$30만	일본 라멘
11. FederalWay	일매상	\$1,500	렌트	\$3,700	\$15만	중식당



벨뷰 교육구 한국어반 학생들, 한국 전통문화 체험

설날 맞아 지난 11일 시애틀한국교육원에서...40여 학생 참석
떡국 등 한국의 설 음식 체험과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 체험도

벨뷰 교육구 한국어반 학생들이 설날을 맞아 시애틀한국교육원에서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중·고등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세배와 전통 놀이, 설 음식 체험을 함께하며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이지은·심우선 교사가 이끄는 벨뷰 교육구 한국어반 학생 40여 명은 지난 11일 오후 시애틀한국교육원(원장 이용욱)을 찾아 설날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한복을 차려입고 새해 인사를 올리며 한국의 세배 예절을 직접 실습했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라는 공통 관심

속에서 한자리에 모여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생들이 미션카드를 들고 친구와 교사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한복 체험을 즐겼다. 이어 수업시간에 배운 세배 예절을 떠올리며 이용욱 원장과 벨뷰 디지털 디스커버리 학교의 톰 듀엔월드 교장에게 정성껏 세배를 올렸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와 함께 한복을 입은 이 원장의 덕담이 이어졌고, 학생들에게는 ‘골든 캐치 호랑이 책갈피’가 선물로 전달됐다. 세배를 마친 뒤에는 따뜻한 떡국을 나누며 한국의 설 음식을 체험했다. 식혜와 약과가 곁들여진 디저트 시간에도 웃음이 이어졌고, 이후 투호 던지기

공기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가 체험이 진행됐다. 행사 마지막에는 편을 나눠 단체 율동이 펼쳐지며 현장의 분위기가 한층 달아올랐다. 이번 행사에는 학부모 자원봉사자 10여 명도 참여해 떡국을 준비하고 학생들의 한복 착용을 도왔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교실을 넘어 실제 공간에서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벨뷰 디지털 디스커버리 학교 측은 “두 교사가 정성껏 준비한 설날 행사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어우러져 한국 문화를 배우고 즐기는 시간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시애틀한국교육원 원장이



지역 한인사회와 차세대 학생들을 위한 문화 체험 공간으로 활용된 점 역시 의미를 더했다. 이용욱 원장은 “교육원이 지역사회 속 한국 문화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뜻깊은 하루였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지은·심우선 교사도 “교육원 직원들의 적극적인 도움 덕분에 행사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다”며 “교육

원이 한국어 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벨뷰 교육구 한국어 프로그램은 지난해 처음 시작된 이후 2년 만에 학생 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일부 중학교에서는 대면 수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두 교사는 벨뷰 교육구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한국어 수업에 등록해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외 동포 특별가 성형 패키지

눈 꺼풀 + 눈 밑 처짐.....	360	콧대 + 코끝	350
얼굴 처짐(목 처짐 포함).....	700	지방흡입(복부)....	500
가슴(보형물에 따라 가격 상이).....	600 ~ 1,000		

* 상담 결과에 따라 수술 방법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휴함을 통한 예약 시 이벤트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 내용에 따라 휴함에서는 숙박 혜택 및 추가 서비스도 제공해드립니다.

미주워싱턴 본부장

에스더 나

Tel : 206-779-5382

이메일 : skgid7700@gmail.com

ONDemand KOREA
TV Box

우리쿨리 **Kooli**



**합법적으로 미주 No.1
한국방송 시청하세요.**

미국 내 최다 시청 ODK TV Box!
이제 거실에서 간편하게 TV 로 보세요

고화질! 저렴한 가격! 무약정! 무료렌탈!

\$19⁹⁹/월

최다 채널 보유, 실시간 서비스, 스마트폰/패드/PC 에서도 이용 가능.



ODK BOX

FREE

최대 합법 IPTV 한국 방송
지금 1년 서비스 구매하시면

\$100 Smart TV BOX 무료!
온디맨드 프리미엄 멤버십 무료!

ODK BOX 단말기 증정 이벤트는 무엇인가요?

ODK BOX 서비스를 통해 한국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선 전용 단말기가 필요한데, 단말기는 \$100에 구매하거나, \$50 보증금을 맡기고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에는 1년 구독하시는 분에 한해 **\$100 상당 전용 단말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1년 서비스 사용료 또한 240불에서 180불로 할인**해드립니다.

ODK BOX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ODK BOX는 셋톱 박스로, **아무런 종류의 TV에 기기만 연결**하면, 모든 ODK 콘텐츠를 큰화면에서 리모콘으로 더욱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ODK BOX만의 특별한 혜택

최신/구작 다시보기 + 실시간 + 100개 채널제공
무약정 / 단말기 무료렌탈
All in One(티비, 핸드폰, 태블릿 컴퓨터에서 시청 가능)
온디맨드코리아 PREMIUM 멤버십 제공(동시 시청 최대 5명)

ODK BOX CARE +

친절한 한국어 기술지원, 설치 안내 및 상담, 단말기 무상교체, 안심케어

린 우 드 : 253-230-7928 (정관장 린우드)
에드몬즈 : 425-773-3525 (Ace Life USA)
페더럴웨이 : 253-232-9277 (K-Beauty)
타 코 마 : 425-760-1773 (OTA World)
벨 뷰 : 425-760-1773 (OTA World)

우린 거실에서 편안하게
티비로!
우리쿨리 **Kooli**

나는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ONDemand KOREA
PREMIUM Membership

엡스타인 파일 공개 후폭풍... "유명 인사보다 피해자 중심으로 접근해야"

전문가 · 생존자들, 사법 시스템 개혁과 공소시효 개선 등 구조적 변화 촉구

연방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된 300만 페이지 이상의 수사 기록을 공개한 지 2주가 지났지만, 파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정·재계와 학계, 연예계를 포함한 이른바 '엘리트' 인사들의 이름이 문서 곳곳에서 언급되며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 단체들은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가 지난 13일 주최한 온라인 언론 브리핑에서 법학자와 현장 활동가, 성매매·인신매매 생존자들은 엡스타인 사건을 계기로 수사와 재판 전반을 피해자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언론과 사회적 관심이 유명 인사들의 연루 여부에 집중되면서 정작 성폭력 피해자들이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지타운대 헌법학·글로벌보건정책 교수인 미셸 굿윈 박사는 이번 사건이 미국 사회가 오랫동안 성폭력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온 현실을 드러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부 공개 문서에서 피해자의 이름과 사진이 충분히 가려지지 않은 채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법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고려가 결여된 조치"라고 비판했다. 엡스타인은 2019년 연방 성매매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구치소에서 사망했으며, 2008년 논란이 된 유죄협상(플리바게닝)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의 오랜 동료 갈레인 맥스웰은 이후 성매매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브리핑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인신매매 사건 가운데 유죄 판결

로 이어지는 비율은 1%에도 못 미친다. 굿윈 교수는 특히 공소시효가 아동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를 가로막는 주요 장벽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많은 주에서 미성년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 제소 기간을 제한하고 있어 어린 시절 학대를 겪은 이들이 법적 절차에 나서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서바이버저스티스센터의 카르멘 맥도널드 대표는 인신매매가 특정 유명 인사들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위층 사건이라 주목받고 있지만 지역사회 곳곳에서도 유사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이민자 피해자들이 추방에 대한 두려움과 언어 장벽, 과거 강요된 범죄 전력 등으로 신고를 꺼리는 현실을 전했다. T비자 등 법적 보호 장치가

존재하지만 최근 강화된 이민 단속 분위기 속에서 이를 활용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휴스턴에 본부를 둔 '노트래피킹존(No Trafficking Zone)' 공동 설립자 재클린 알루오토는 "인신매매는 연간 245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산업으로, 높은 수익에 비해 처벌 위험이 낮았던 범죄"라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텍사스에서 학교와 대학 인근 인신매매를 1급 중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통과에 기여했으며, 조사 결과 생존자의 55%가 학교 관련 환경에서 처음 접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 인신매매 대응 자문위원회 전 위원인 코트니 리트박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수사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17세 때 약 3년간 성매매 조직에 의해 착취된 경험을 밝히며 "수사기관

이 사건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아무도 너를 믿지 않는다'는 가해자의 말이 현실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또한 인신매매가 마약·무기 밀매와 자금세탁 등과 얽혀 있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에게 과도한 증거 책임을 요구하는 현재의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엡스타인 파일 공개가 단순한 폭로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맥도널드 대표는 "피해자가 왜 즉시 신고하지 않았는지를 따지기보다 정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굿윈 교수 역시 공소시효 연장과 피해자 보호 절차 마련 등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이번 공개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조적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신은 늘 가족을 돌봐왔습니다 사전 준비의 선물을 전하세요.

제공하는 서비스

화장서비스
전통장례방식
3개의예배당
관
유골함

장례식화환
서비스프로그램
대형묘소
정원같은묘지
음식제공서비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Sung Yun(윤성근) - 253-334-8834 Sung.Yun@NSMG.com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을 이용해보세요!



만성 질환 수술

더이상 불편함을 참지 마시고 치료 하세요!

병원 선택/ 의사 선택/ 예약 및 치료절차/ 치료 후 사후 관리/ 비용등...
휴람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치질
(1-3일)

자궁
(2-6일)

유방
(2-5일)

척추
(1-5일)

편도선
(1-5일)

담낭용종(담석)
(2-4일)

요실금
(2-4일)

갑상선
(3-4일)

관절(어깨, 무릎, 고관절등)
(3-14일)

암수술
(5-14일)

탈장
(2-3일)

난소
(2-3일)

전립선
(1-14일)

하지정맥류
(1-3일)

※ ()입원기간 표기 :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에 검사하신 기록이 있으시다면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수술은 병원에 따라 입원기간 및 비용,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은 국내수가로 부담없는 비용에 편안하고 안전한 진행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증양대학교병원(흑석역)

서울부민병원(가양역)

강남병원(기흥역)

H+양지병원(신림역)

세란병원(독립문역)

안산한도병원(선부역)

※ 휴람의료네트워크병원은 휴람 고객을 최우선으로 one-stop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주워싱턴 본부장
에스더 나

Tel : 206-779-5382
이메일 : skgid7700@gmail.com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휴람 의료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 휴람건강검진 ◆

시설, 장비, 퀄리티, 검진항목,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위' 프로그램입니다!!!

"휴람은 상담 - 예약 - 검진진행 - 사후관리를 보호자 역할로서 도와드립니다."



휴람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 | | |
|----------------------------------|-----------------------------|
| 1. 이학적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안압, 혈압) | 7. 체지방검사 |
| 2. 청력검사 (순음청력검사) | 8. 부인과검사 (자궁경부암, 유방특수촬영) |
| 3. 혈액검사 (종합혈액검사 70여가지) | 9. 소화기검사 (수면 위내시경) |
| 4. 암표지자검사 | 10. 복부초음파검사 (간장, 췌장, 복부장기등) |
| 5. 심폐기능검사 (흉부X-RAY, EKG, 노력성폐활량) |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 6. 요검사 | |

휴람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 오전 4시간 49만원 - 110만원

- 기본항목 + [남] 흉부(폐)CT, 전립선초음파, 골밀도, 비타민D검사
- 기본항목 + [여] 갑상선초음파, 자궁초음파, 유방초음파, 골밀도, 비타민D검사

휴람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14시 ~ 명일 12시경 퇴원 65만원 - 110만원

- 휴람 당일종합검진 + 수면 대장내시경+ 숙박(1인실)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14시 ~ 명일 12시경 퇴원 115만원 - 186만원

- 휴람 숙박종합검진 + 뇌MRA, 심장CT

휴람 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퇴원 210만원 - 320만원

-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 뇌MRI, 심장초음파, 복부조영CT, 흉부(폐)CT
갑상선초음파, 경동맥초음파 + 픽업서비스(서울지역만 가능)

휴람 V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2일간 진행(오전에만 검사 시행) 462만원 - 485만원

- 휴람 VIP종합검진 + PET-CT(전신암정밀검사), 복부비만CT, 관상동맥CT
뇌심장정밀혈액검사 + 2일간 픽업서비스(서울지역만 가능)

※ 휴람을 통한 예약 시 해외동포 특별가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기 검진은 병원에 따라 검진 항목 및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의료 네트워크 병원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 | |
|-------------------|-------------|
| 중앙대학교병원(흑석역) | H+양지병원(신림역) |
| 세란병원(독립문역) | 안산한도병원(선부역) |
| 광동병원[양방&한방](봉은사역) | |



미주워싱턴 본부장
에스더 나

Tel : 206-779-5382
이메일 : skgid7700@gmail.com



코스트코, '무조건 환불' 시대 끝나나...반품 정책 조용히 강화

- ▶ '언제든 무조건 환불' 원칙 유지하면서도 현장에서 검증 절차 강화
- ▶ 미국 소매업계 반품 손실 연간 6850억 달러...사기성 반품만 1030억 달러
- ▶ 회원 충성도와 비용 통제 사이 균형 과제...저가 품목은 유연성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미국 대형 창고형 매장 코스트코(Costco)가 업계에서 가장 관대한 것으로 알려진 반품 정책을 조용히 강화하고 있다. 영수증 없이 언제든 어떤 이유로든 반품이 가능하다는 원칙 자체는 유지되고 있지만, 매장 현장에서 직원들의 검증이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회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 "10년 전 '묻지도 따지지도 않던' 분위기 사라졌다" 더스트리트(TheStreet)에 따르면, 코스트코 회원들 사이에서 반품 경험이 예전 같지 않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한 회원은 개봉하지 않은 우유가 유통기한 5일 전에 상했을 때, 과거에는 전화 한 통으로 환불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상한 우유를 직접 매장에 가져와야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서도 "예전의 '묻지 않는 환불' 정책이 상당히

엄격해졌다"며 "직원들이 반품 품목에 대해 꼼꼼하게 따지는 느낌이고, 처음 가입했을 때의 편안한 경험과는 다르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코스트코는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기간·사유 제한 없이 반품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예외를 두고 있다.

전자제품은 구매 후 90일 이내에만 반품이 가능하고, 다이아몬드는 별도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배터리·타이어 등 수명이 제한된 제품에는 별도의 한정 보증이 적용된다. 담배, 주류, 이벤트 티켓, 귀금속, 상품권 등은 반품 대상에서 제외된다.

◆ 반품 사기만 연간 1030억 달러...소매업계 전체가 정책 강화 추세 코스트코의 변화는 미국 소매업계 전체의 반품 문제와 맞닿아 있다. 소매 데이터 분석 업체 애프리스 리테일(Appriss Retail)과 딜

로이트의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미국 소매업계의 총 반품 규모는 6850억 달러로 전체 매출의 13.2%에 달했다. 이중 사기성 반품과 허위 클레임으로 인한 손실만 약 1030억 달러로, 반품 상품의 약 15%가 부정 반품인 것으로 추산됐다. 딜로이트 컨설팅의 소매 부문 매니징 디렉터 케빈 마호니는 "반품은 소매업체에 상당한 비용 부담이며, 온라인 쇼핑의 성장이 이 추세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기가 아닌 정상적 반품도 소매업체에는 적지 않은 비용 요인이다. 재입고와 배송 비용, 반품 처리에 투입되는 인건비, 재고 가치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반품된 상품이 원래 가격에 다시 판매되리라는 보장도 없다. 이 때문에 미국 소매업계 전반에서 반품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코



[사진=김승규 기자] 코스트코

스트코도 이 흐름에 동참한 것으로 해석된다. ◆ 회원 충성도 vs 비용 통제... "저가 품목은 유연해야" 지적도 2024년에는 한 코스트코 회원이 2년 전 구매한 소파를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품한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이처럼 관대한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코스트코가 정책 강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부정 반품으로 회사 수익이 악화되면 결국 상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회

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3.50달러짜리 상한 우유 환불과 2년 된 소파 반품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라며, 저가·저위험 품목에 대해서는 회원 유지를 위해 과거의 유연한 대응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0년 이상 코스트코 회원 자격을 유지해 온 소비자들에게 관대한 반품 정책은 연회비를 기꺼이 지불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시애틀코리아데일리>

시애틀 아마존 본사 앞 집회... "ICE와 계약 중단하라"

시애틀 다운타운 아마존 본사 '스피어스' 앞에서 13일 수십 명의 지역 주민과 활동가, 아마존 직원들이 모여 이민 단속 관련 연방 기관과의 사업 관계를 끊을 것을 촉구했다. 시애틀타임스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수치"를 외치며 최근 수개월간 연방 요원에 의해 사망한 활동가들의 이름을 호명했다고 전했다. 발언자들은 아마존이 이민세

관단속국(약칭 ICE)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약칭 CBP) 등과 맺은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을 강하게 비판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과 세관국경보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약 1억4천만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는 '아마존 직원 기후정의'와 '아파트헤이트를 위한 기술은 안

된다', '이민자 보호 연합' 등 단체가 주도했다. 이들은 ▲이민세관단속국·세관국경보호국에 대한 클라우드 지원 중단 ▲이민 단속에 데이터가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사와의 협력 종료 ▲아마존 자회사 링의 감시 기술 기업 플록 세이프티와의 제휴 중단 등을 요구했다. 아마존은 활동가들의 요구에 대한 직접적 대응 여부는 밝히지 않았지만, 전

날 플록 세이프티와의 협업 계획을 철회했다. 이는 미식축구 결승전 기간 방영된 링 광고가 대규모 감시에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은 뒤 나온 조치다. 링 측은 "종합 검토 결과, 플록 세이프티와의 통합에는 예상보다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이민 정책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 정부와의 기술 계약 문제

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 아마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아흐메드 사투르는 기업의 정부 계약에 맞선 '직원 주도 행동'을 촉구했다. 시애틀 시의원 알렉시스 메르세데스 링크도 연단에 올라 "소비자의 선택이 기업 결정을 바꿀 수 있다"며 "오늘 아마존이 플록 세이프티와의 관계를 끝낸 것도 시민들의 목소리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조시애틀뉴스>

① JEIL TV 제일티비 KOREA TV 한국 티브 방송 실시간 시청

58개 채널 실시간 생방송 제공 모든 채널의 재방송 시청 가능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생방송: 드라마, 오락, 영화, 뉴스, 스포츠, 어린이, 해외드라마, 종영드라마까지 풍부한 콘텐츠

KBS	MBC	SBS	EBS	tvN	YTN	Mnet	Inet-TV	OCN	CTS	JEI 제능
SBS	KBS	KBS2	MBC	EBS	연합뉴스	YTN	JTBC	MBN	CHA	
TV조선	TVN	OCN	OCN Movies	CHA	SCREEN	TVN	TOONIVERS	OCN Thrills	OCN Thrills	
재능 TV	EBS2	EBS English	TOONIVERS	KBS Kids	MBC 스포츠	SBS GOLF	SBS스포츠	KBS스포츠	KBS스포츠	
MBC 스포츠	SBS GOLF	JTBC GOLD	SPOTV2	KBS스포츠	SPOTV ON	MBC 스포츠	TVN Story	SPOTV	SPOTV	
SPOTV ON	MBC 스포츠	JBC GOLF&스포츠	TVN Story	INET	MNET	CH NOW	FTV	바둑TV	INET	
BILLARDS TV	NATIONAL	JTBC2	SBS PLUS	KBS DRAMA	BILLARDS TV	NATIONAL	BBC	KBS DRAMA	바둑TV	
MBC DRAMA	KBS joy	CHING	BBC	CTS	MBC DRAMA	KBS joy	KBS1	CTS	KBS DRAMA	
BTN	CNTV	PBC	KBS1	CTS	BTN	CNTV		CTS	CTS	
매일경제TV	MBC	SBS		KBS2	매일경제TV	MBC		KBS2	KBS2	

가격할인 이벤트

3개월 \$ 90
6개월 \$ 180
1년 \$ 330

Set top Box \$70 → \$50

Free Shipping(미국 내 only)

Free Activation

Cell: 702-937-4616 Email: koreatvjeiltv@gmail.com 카카오톡: Koreatvjeiltv (문자 & 보이스톡 가능)

벼룩시장

J&J CLAIMS 지원자 모집

현재 J&J CLAIMS (www.carcrashwa.com) 팀에 합류할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 ▶모집 직무:
개인 상해 (자동차 사고 등) - 2명
일반 소송 (법률 보조) - 1명
- ▶근무처: 다운타운 타코마 (IRS 빌딩 6층)
- ▶자격 요건: 영어/한국어 가능
기본 컴퓨터 활용 능력 (MS Word, Excel 등)
- ▶근무 시간: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00 - 오후 5:00
- ▶근무 환경: 실내주차장 제공, 깨끗한 주변, 안전한 근무 환경
- ▶페이조건: \$22~\$52.08 +
- ▶업무 내용: 고객 (병원 등)과의 소통/병원 및 고객 관련 문서 관리 및 정리

지원 방법: 이력서 또는 자기소개서를 sung@carcrashwa.com으로 제출해 주세요.

북경가든 주방장 구함

주방장 구함

타코마 팔도월드(Food Court)

253.588.2399

벨뷰 뮤직 아카데미

- ▶노래교실&동호회 - 음치도 박치도 괜찮대! 함께 즐겨요!
- ▶통기타 강의 - 초보: 실력에 맞춘 강좌.
- 중급: 악보없이 기타칠 수 있습니다.
- ▶드럼 - 스트레스 날릴 파워풀한 리듬!
- ▶K-POP - 프로 아티스트 트레이너
-YG,PSY,김범수,성시경 등 대형 프로젝트 참여

206-306-6108

최첨단 페이스/바디케어 미용장비 판매

1. SMART Line Skin Care. 7-in-1
Skin scrubber, Lonto Phoresis, Y Lifting, Ultral Sound, Cryo
2. E-Trans system/Magic pot. 최첨단 리프팅기기
트리폴라 열에너지, 초강력 엔들로마자 시스템,
부이 빔 블루 레드 칼라 테라피

503-957-3821

Shin's Wellbeing Food

shinwellbeingfoods.carrd.co

김치 Specialist

무설탕, NO MSG, 한국 고추가루사용

천연재료만으로 맛을 낸 믿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김치 배달합니다.

206-887-3088(카톡주문 가능)

차량 판매

2020년 형 렉서스 RX450h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합니다. 원래 오너가 곱게 타던 무사고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타이어 새것으로 교체한지 1주일밖에 안 됐음. 색깔은 흰색

206.670.8654

차량 판매

2014년 형 렉서스 CT 200h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합니다. 원래 오너가 곱게 타던 무사고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색깔은 빨간색

206.670.8654

구인

H-mart Tacoma 구인
지원자격: 미국내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는자

지원부서: Cachier, Grocery, Deli

근무조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점심 제공

(425) 312.4588

공항 Pick Up

공항 Pick Up 또는
라이더 필요하신분
어디든지 갑니다

253-337-7209

구인

한국어/영어 구사 가능한
리걸 어시스턴트 구함
401k 및 건강보험, PTO 제공
2년 이상 경력자 우대
이력서 보낼곳:
Justin@parkchenaur.com
(박쉬나 법률)

253-839-9440

무료상담

편안한 집에서 외롭고
힘들고 지친 이민생활과
가정, 자녀, 신앙 등에
관한 무료상담해 드립니다.

253-503-9984

주유소 파트타임

(주 3~4일)
일하실 직원분 구합니다.
디모인스
(Sea Tac 근처)지역
(전화, 문자)

206-334-7532

한국식당 장비판매

바베큐 테이블 set 신제품 20개
(마블10개/ 체리10개),
냉면 육수 냉장고, 스시 케이스 5ft,
파저리 기계, 등..
한국바베큐식당에 필요한것
모두 있습니다.

253-754-5243

뷰티 서플라이 일하실 분

뷰티 서플라이에서
일하실 분
경험자 우대
full or part time

253 228 4727 / 504 444 7453

룸렌트

타코마 신신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하실 캐슈어/세일즈/창고
직원 원합니다
파트타임/풀타임 가능
이메일 : twin0418@aol.com

(253) 582.2975

렌트

벨링햄
방 한개만
사용할 학생
\$800/월

(253) 334.6078

안쓰는 물건 치워드립니다

운반, 창고 정리, 유품정리,
폐기물처리(수거비) / (대형트럭)
금, 은, 보석 무료감정, 시세매수

253-222-9822

스페이스 리스

스노퀄미 마켓 Empty Space 렌트
스노퀄미역 바로 앞/스노퀄미
폭포 관광지에서 1마일 / 커피, 빵
스무디 등의 비즈니스에 적합
Set - Up 공사기간 3개월
FREE Rent, 1,895 Sqft
렌트비 : \$3,947+ NNN

(206)496.7060

아파트 렌트

- ▶방1, 큰화장실1
유틸리티 \$150
렌트비\$1,500
- ▶방2, 화장실1
유틸리티\$150
렌트비\$1,500

- ▶방1, 화장실1
유틸리티 \$100
렌트비\$1,200

신축, 좋은 로케이션
(타코마 부한 바로 옆)

253-302-7095

방 렌트

씨택 공항 근처
렌트비: 750불(유틸리티 포함)
남학생, 직장 다니시는 분 환영.
금주, 금연 하시는 분 환영

206-679-9208

간병 서비스를 원하십니까?
청소/요리 서비스를 원하십니까?
라이드 서비스를 원하십니까?

항시 남/여
일할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253) 571.8080

로맨틱 소개팅 (결혼정보)

당신에게 맞는 짝이 있습니다
커플메니저가 좋은 만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253) 571.8080

병원 스페이스 렌트

L.Ac, DPT, LMT
Office space for Rent
815 sqft
(Including rooms, recreation
rooms, and bathrooms)

253-941-6779
Email:chachiropractic@gmail.com

박스광고 \$80/4회 206-779-5382

"그녀의 생명에는 가치가 없다"던 경찰...시애틀시, 유족에 2901만 달러 합의금 지급

- ▶ 2023년 1월 시속 74마일 과속 경찰차에 횡단보도 보행 중 사망...충격으로 137피트 튕겨져
- ▶ 출동 경찰관 보디캠에 "별 가치 없다" 조롱 녹음...국제적 분노 촉발
- ▶ 시애틀시 역대 최대 규모 합의...2901만1000달러 중 2000만 달러 보험 충당

시애틀시가 과속하던 경찰차에 치여 숨진 인도인 유학생 자아나비 칸둘라(당시 23세)의 유족에게 2901만1000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고 발생 3년여 만에 이루어진 이번 합의는 시애틀시 역대 최대 규모의 경찰 관련 합의금 중 하나로, 경찰의 과잉 대응과 내부 문화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 시속 25마일 구간서 74마일로 질주...137피트 튕겨 나가 사망 2023년 1월 23일 밤, 시애틀 사우스레이크유니언 지역 텍스터 애비뉴 노스(Dexter Ave N)와 토머스 스트리트(Thomas St) 교차 횡단보도에서 칸둘라가 경찰 SUV에 치였다. 약물 과다복용 신고에 출동하던 시애틀 경찰국(SPD) 소속 케빈 데이브 경관은 시속 25마일 제한 구간을 최대 시속 74마일로 달리고 있었다. 비상등은 켜져 있었고 교차로에서 사이렌을 간헐적으로 울리고 있었다. 대시캠 영상에 따르면 칸둘라는 도로에 발을 내디딘 뒤 과속 차량을 발견하고 교차로를 건너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칸둘라는 이어버드를 착용하고 있었다. 충격으로 칸둘라는 약 137피트나 튕겨 나갔다. 데이브 경관이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고 다른 경찰

관과 구급대원이 도착했지만, 칸둘라는 그날 저녁 하버뷰 메디컬센터에서 사망했다.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 출신인 칸둘라는 노스이스턴대학교 시애틀 캠퍼스에서 정보시스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으며, 2023년 12월 졸업 예정이었다.

◆ "별 가치도 없다"...보디캠에 녹음된 경찰관의 조롱이 사건을 바꿨다 사고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이 사건이 국제적 분노를 촉발한 결정적 계기는 따로 있었다. 사고 수개월 뒤 보디캠 영상에 대한 내부 검토 과정에서 경찰국 직원이 문제의 녹음을 발견해 부서 변호사와 경찰책임감사실(OPA)에 보고하면서 공식 조사가 시작됐다.

Organiser Weekly 녹음의 주인공은 당시 시애틀 경찰노조 부위원장인 다니엘 오더러 경관이였다. 오더러는 사건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경찰노조 위원장 마이크 솔란에게 전화를 걸어 칸둘라의 죽음에 대해 웃으며 그녀의 생명이 "제한된 가치(limited value)"밖에 없다고 말하고, 시에서 "그냥 수표 한 장 써주면 된다"고 농담했다. 오더러는 솔란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면서 "보닛 위로 올라가 앞유리에 부딪히고, 브레이크를 밟자 차에서 날아간 것 같다"고 말한 뒤 "하지만 그녀는 죽었어"

라며 수 초간 크게 웃었다. 이어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수표 하나만 써라. 1만1000달러 정도. 어차피 26살이었다. 별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이 녹음이 공개되자 시애틀 남아시아 커뮤니티의 분노가 국제적으로 폭발했다. 인도 정부 외교관들도 조사를 촉구했다. 당시 SPD 임시 서장 수 라는 내부 이메일에서 오더러의 발언이 초래한 피해를 "회복 불가능(irreparable)"하다고 규정하며 경찰 조직에 수치를 안겼다고 밝혔다.

◆ 가해 경관·조롱 경관 모두 해임...형사 기소는 면해 임시 서장 수 라는 데이브 경관이 부서 정책을 따르지 않았고, 비상등 작동 의무를 위반했으며, 긴급 출동 중 속도를 조절하지 않았고,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지 않은 4가지 정책 위반을 적시했다. 데이브는 과실 운전으로 교통 딱지를 받부받고 5000달러 벌금 납부에 합의했지만, 킹카운티 검찰은 고의로 안전을 무시했음을 입증할 수 없다며 중범죄 기소를 하지 않았다. 데이브는 2025년 1월 해임됐다. 오더러도 시 민간감독기구로부터 그의 발언이 경찰국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민의 신뢰를 약화시켰다는 판단을 받아 2024년 7월 해임됐다. 오더러는 발언이



경찰차에 사망한 자아나비 칸둘라(23)

맥락에서 벗어났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현재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시를 상대로 250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 유족 소송에서 시 역대급 합의...2000만 달러는 보험 충당 칸둘라의 유족은 2024년 9월 킹카운티 고등법원에 시애틀시와 데이브 경관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사망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칸둘라가 "사망 전 극심한 공포, 심각한 정서적 고통,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기재됐다. 원래 청구 금액은 1억1000만 달러 이상이었다. 2월 12일 시애틀시는 2901만1000달러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약 2000만 달러는 시 보험으로 충당되며 나머지는 시 재정에서 지급된다. NRI Pulse 합의금 금액 '2901만1000달러'에는 오더러가 조롱하며 말한 '1만1000달러'가 포함돼 있어 상징적 의미가 읽힌다. 에리카 에반스 시애틀시 검사장은 "칸둘라의 죽음은 가슴 아픈 일이었으

며, 시는 이번 합의가 칸둘라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 자아나비 칸둘라의 생명은 소중했다.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라고 밝혔다.

유족 측 변호사 본다 사전트는 "이 충돌은 예방 가능했다"며 "칸둘라가 길에서 쓰러질 이유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인도와 텍사스에 거주하는 칸둘라의 가족은 "어떤 금액으로도 자아나비를 되돌릴 수 없지만, 이번 결정이 우리가 겪은 상실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그녀의 삶의 가치를 되새기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노스이스턴대학교는 칸둘라의 학업 성취와 동료 학생들에게 미친 영향을 기려 명예 석사 학위를 추서했다. 인도계 미국인 커뮤니티 서비스(Indian American Community Services)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 합의를 넘어 보다 광범위한 경찰 개혁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 <시애틀코리아데일리>

'영주권자'인데 왜?... 스포컨서 세 아이 엄마 ICE에 전격 체포

- ▶ 영국 런던 출신 영주권자 로런 모리스, 지난 11일 법원 밖에서 ICE에 구금
- ▶ 15세 때 입국해 10년 넘게 거주... 시민권자 남편과 세 자녀 둔 '합법적 체류자'
- ▶ 법원 근처 잠복 단속 및 영주권자 표적 구금에 대한 법적·윤리적 논란 심화

워싱턴주 스포컨에서 10년 넘게 거주해 온 영국 국적의 영주권자 로런 모리스(32) 씨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기습 체포되면서 합법적 신분 소지자에 대한 과잉 단속 논란이 일고 있다. 모리스 씨의 가족과 지역 사회는 그가 정식 영주권자임을 강조하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 영주권자 신분임에도 교통 단속 위장해 기습 연행 현지 언론의 추가 보도에 따르면, 모리스 씨는 지난 2월 11일 오전 스포컨 카운티 법원에서 보호 명령(Restraining Order)과 관련된 보호

관찰 일정을 마치고 나오던 중 체포됐다. 당시 사복 차림의 ICE 요원들은 일반 차량으로 모리스 씨의 차량을 가로막아 교통 단속처럼 위장했으며, 신원을 확인한 즉시 그를 연행했다. 가족들은 모리스 씨가 15세 때 미국에 입국해 합법적인 영주권(Green Card)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당국이 무리한 단속을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16개월 딸 앞에서 수감... 붕괴된 가족의 일상 이번 체포는 모리스 씨의 16개월 된 막내딸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져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 시

민권자인 남편 브렌든 모리스 씨는 "아내는 10년 동안 성실히 살아온 영주권자이며 우리 가족의 중심"이라며 "어린 딸 앞에서 엄마를 범죄자처럼 끌고 간 행위는 인권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모리스 씨는 현재 타코마의 노스웨스트 이민 구금 센터(NWIPC)에 수감 중이며, 오는 2월 26일 이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가족들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한편, 갑작스러운 구금으로 인한 생계 및 법정비용 마련을 위해 온라인 모금 활동을 시작했다. ◆ 영주권자 체포 배경과 사법 접근권 위축 우려 ICE 측은 구체적



[사진=시생성이미지]

인 체포 사유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인권 단체들은 과거의 경미한 법적 기록이나 보호관찰 상황이 시스템상에서 '깃발(flag)'로 작동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법원 근처에서 잠복 단속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합법적 신분이나 서류 미비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을 찾는 이들을 표적으로 삼는 행위는 이민자들이 사법 시스템의 보호를 받는 것을 포기하게 만든다"며, 이는 지역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애틀코리아데일리>





브라이언 서렛 시애틀 부시장이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브라이언 서렛 시애틀 부시장이 어머니 박정숙씨와 축하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서은지 총영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워싱턴주 한미연합회(KAC) 샘 조 회장이 브라이언 서렛 시애틀 부시장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이민자 허슬 아는 리더"

범한인사회, 한인 2세 브라이언 서렛 시애틀 부시장 취임 축하리셉션 열어 지난 11일 저녁 시애틀 다운타운 트리플 도어 내 뮤직쿠아리움 라운지에서

지난 11일 저녁 시애틀 다운타운 트리플 도어 내 뮤직쿠아리움 라운지에서 한국인 어머니를 둔 한인 2세 브라이언 서렛 시애틀 부시장의 취임 축하하는 범한인사회 리셉션이 열렸다.

인구 규모 전미 15위 대도시 시애틀의 단독 부시장으로 한인 2세가 선임된 것을 기념하는 이날 행사에는 한인 1.5세와 2세를 중심으로 5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축하를 보냈다.

이승영 변호사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광역시애틀한인회(회장 김원준·이사장 샘 심), 워싱턴주 한미연합회(KAC·회장 샘 조),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회장 오명규, 이사장 은지연), 그리고 서렛 부시장이 몸담았던 그레이터 시애틀 파트너스(GSP)가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했다.

참석자 명단을 화려했다. 샘 조, 리사 매니언, 피터 권, 제이슨 문 등 한인 선출직 인사들과 서은지 시애틀 총영사, 조기승 서북미연합회장 등 한인사회 각계 지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특히 오를라호마에서 날아온 서렛 부시장의 어머니 박정숙씨를 비롯해 딸 마야 서렛, 장모와 처제·처남 등 처가 식구들이 총출동에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서 가장 주목받은 순간은 어머니 박정숙씨의 즉석 연설이었다. 박씨는 "이렇게 귀한 시간과 장소를 마련 해주시고 축하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면서도 "솔직히 마음이 무거웠다. 이 잡(직무)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나도 알고 있고 어려운 시기를 오랫동안 버텼는데 왜 이 길을 선택했나 생각이 많았다"고 진솔한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기왕 선택한 것이니 겸손하고 정직하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믿는다. 어려서부터 책임감이 강했던 아이"라고 아들에 대한 신뢰를 표현했다. 박씨는 특히 "우리 브라이언은 한국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다. 미국 2세대들 중에서도 유독 한국과 한국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다"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위안부(일본군 성노예)에 대한 논문을 쓰겠다고 준비하

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회상했다. 박씨는 "사실 정치보다 전문직을 갖기를 원했지만 결국 말리지 못했다"면서도 한인사회의 지속적인 기도를 당부했다. 오를라호마 교회에서도 유튜브를 통해 소식을 접하고 크게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일화도 전했다. 한인사회에 공식적으로 첫 인사를 전한 서렛 부시장은 깊은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지금 너무 감격스럽다.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며 "나는 한국계 미국인이자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렛은 1998년 여름 시애틀에 처음 왔을 때를 회상하며 "아는 사람이 한 명뿐이었는데, 한인 커뮤니티가 나를 품어줬고 그때 이곳이 내 집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나의 어머니 같은 이민 1세대 부모 세대의 용기와 희생을 결코 잊지 않고 있으며, 그분들 덕분에 내가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됐다"고 감사를 전했다.

그는 "한인 커뮤니티에는 시 내부의 든든한 파트너이자 옹호자가 될 것이며, 한인을 돕는 일은 곧 도시 전체를 돕는 일"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리사 매니언, 피터 권, 제이슨 문 등 한인 선출직 인사들을 언급하며 "한인들이 이런 공직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다.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서렛 부시장은 3년 전 오랜 투병생활을 했던 부인 크리스티나 흥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는 슬픔을 겪었으며, 현재는 워싱턴대(UW)에 진학한 딸 마야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처가인 흥 가족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하며 "흥 가족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다"고 말했다. 서은지 시애틀 총영사는 이날 시호크스(Seahawks) 슈퍼볼 우승 패레이드와 서렛 부시장 축하연이 같은 날 열린 것에 주목하며 "경기장에서 챔피언을 축하하고, 시청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축하

하는 날"이라고 운을 뗐다. 서 총영사는 서 부시장의 리더십을 '크래프트맨십(장인 정신)'이라는 단어로 요약했다. 2024년 서렛이 그레이터 시애틀 파트너스(GSP) 대표로서 한국 경제 사절단을 이끌었을 때의 경험을 소개하며 "그는 단순히 출장을 조직한 것이 아니라, 관계의 다리를 놓았다(crafted a bridge). 그 결과 대전시에서 시애틀로 답방 사절단이 오는 성과로 이어졌다"고 높이 평가했다.

서 총영사는 "브라이언 서렛 부시장의 취임은 한인 동포사회뿐 아니라 한미 양국을 잇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며 "군산에서 태어나 오를라호마에서 자라며 매년 군산을 찾아 뿌리를 확인해온 서렛 부시장은 문화 간 이해와 공감이라는 자질이 위대한 도시의 부시장이 됐다. 그의 리더십이 시애틀의 다양성과 포용을 더욱 강화하고, 혁신을 이끌며, 시애틀을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축하했다.

워싱턴주 한미연합회(KAC) 회장이자 향만 위원장인 샘 조는 서렛과의 오랜 인연을 강조했다. 그는 "2002년 '아카와(AKAWA)', 현 KAC 워싱턴을 창립할 때 브라이언이 초대 재무(treasurer)였다. 30년 넘게 커뮤니티에 헌신해온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샘 조는 "향후 몇 년은 시애틀 도시와 지역사회에 도전이 많은 시기"라며 "워싱턴 DC에서 오는 도전까지 겹쳐 앞으로 4년은 모든 선출직 지도자들에게 매우 어려울 것이지만, 이 도전의 중심에서 시청을 이끌 사람으로 브라이언보다 나은 인물은 없다. 아마 더 많은 보수를 받던 자리(GSP CEO)를 떠나 공직에 나선 것 자체가 그의 헌신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총영사님이 시애틀에 챔피언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에게도 브라이언 서렛이라는 챔피언이 있다"고 덧붙였다.

샘 심 광역시애틀한인회 이사장은 "한인사회가 함께 뭉쳐 지지와 협력을 보내야 할 때"라며 공동체의 연대를 강조했다. 그는 서렛 부시장에 대해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따뜻함과 우리

커뮤니티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을 바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개발국장 시절부터 그레이터 시애틀 파트너스까지, 그의 이력은 기회를 만들어내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길"이라며 "이 위대한 도시 시애틀을 위해 그 마음을 절대 잃지 말아 달라. 우리가 뒤에서 든든히 지지하겠다"고 당부했다. 또한 자신이 인종차별의 직접적 대상이었던 경험을 언급하며 "시애틀이 우리에게 목소리를 낼 기회를 주고 있다. 브라이언이 우리를 그 길로 이끌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오명규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늘 밤 이 트리플 도어에 에너지와 리더십이 가득한 모습이 정말 감격적"이라며 축사를 시작했다. 오 회장은 서렛 부시장의 임명이 "시장실의 승리만이 아니라 모든 소상공인, 이민자 창업가, 그리고 모두를 위해 작동하는 시애틀을 믿는 모든 시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오 회장은 특히 서렛의 성장 배경에 주목했다. "한국에서 태어나 이민자 가정에서 자라며 어머니가 샌드위치 가게부터 한국 식당까지 운영하는 것을 지켜본 당신은 '이민자의 허슬(immigrant hustle)'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 당신은 우리 상공회의소가 대변하는 바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아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회의실에 들어가 글로벌 무역 협상을 이끌 수 있으면서도 인터내셔널 디스트리뷰트 노스 시애틀의 가족 식당이 겪는 어려움도 이해하는 리더"라며 "형평성(equity)과 기회(opportunity)를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라고 치켜세웠다.

오 회장은 "한인상공회의소와 오늘 이 자리의 모든 파트너들은 당신의 '간부(KKANBU)'다. 시애틀이 혁신이 꽃피고 모든 커뮤니티가 자리를 얻는 도시로 남을 수 있도록 함께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당신의 리더십이 우리 거리에 번영을, 우리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주기를 바란다"고 축하했다. 서렛의 가족 대표 자격으로 연단에 올라

"한인사회에 대해 내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모인다는 것(we just show up)"

이라며 "교회에서든, 상조회에서든, 시민단체에서든, 어려울 때도 축하할 때도 한인사회는 언제나 함께한다"고 말했다. 케이트 흥은 "브라이언은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종종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불평 한마디 없이 일한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가 그런 가족의 전통 속에서 자랐나"라며 "브라이언은 우리 커뮤니티 일부가 아닌 모두가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지칠 줄 모르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만 50세인 서렛 부시장은 1970년대 중반 전북 군산에서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5세 때 미국 오를라호마로 건너가 대학을 졸업한 뒤 1990년대 후반 시애틀로 이주해 본격적인 공직 및 경제개발 분야 경력을 쌓았다.

2002년 KAC 워싱턴 창립 시 초대 재무를 맡아 한인사회 시민참여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했으며, 이후 시애틀시 경제개발국장을 지내며 소상공인 지원, 핵심 산업 육성, 인력 개발, 외국인 투자 유치, 지역 상권 보호 정책 등을 이끌었다. 전국 최초로 시간당 15달러 최저임금 정책의 실무를 총괄해 전국적 주목을 받았고, 클라리넷 플레지 아래나 건설을 위한 대규모 개발 협상을 주도했다. 이후 민관 경제개발 파트너십 기관인 그레이터 시애틀 파트너스(GSP) 최고경영자(CEO)로 활동하며 기업 유치와 국제 교류 확대에 힘썼다. 워싱턴대학교 예번스 공공정책·거버넌스 스쿨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서렛 부시장은 케이트 윌슨 시장과 함께 시애틀시가 직면한 주거 문제, 경제 활성화, 지역 파트너십 강화 등 핵심 정책 의제를 총괄하게 된다. 참석자들은 한인 2세 공직자가 미 전국 15번째 규모 대도시의 단독 부시장으로 탄생한 것에 대해 아낌없는 축하를 보내면서, 서렛 부시장이 한인 커뮤니티의 자산이자 자부심을 다함께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시애틀코리아데일리)

HMART

7 DAYS SALE

FEB 20TH - FEB 26TH, 2026

일주일 내내 매일할인 (야채부/정육부는 4일간 진행)

WWW.HMARTUS.COM



6pk/105g 2종
삼양
불닭볶음면

12⁹⁸
BOX

행복충전

100%

힐링푸드와 함께
스트레스 아웃!



550g, 700g
한상
부대찌개/감자탕
6⁹⁸ / 8⁹⁸
EA



560g 3종
초립동이
쌍팔년도떡볶이 **3⁹⁸**
EA



ONLY
4 days 금/토/일/월
아들포망고 **17⁹⁸**
BOX



1LB
SUPREME
마사고
5⁹⁸
PK



290g
레몬랜드
낙지볶음 **6⁹⁸**
PK



ONLY
4 days 금/토/일/월
목살구이용 **4⁹⁸**
LB

PRODUCE SALE 야채

ONLY
4 days 금/토/일/월



타미망고 **14⁹⁸**
BOX



아보카도백 **3⁹⁸**
BAG



백천도/황천도 **2²⁸**
LB



2LB
그린키위 **6⁴⁸**
PK



2LB
골드너겟만다린 **3⁴⁸**
BAG



1LB
딸기 **3⁴⁸**
PK



로마토마토 **1⁴⁸**
LB



한국시금치 **3²⁸**
LB



8oz 유기농
드타리버섯 **2⁷⁸**
PK



양배추 **0⁸⁸**
LB



생강 **1⁴⁸**
L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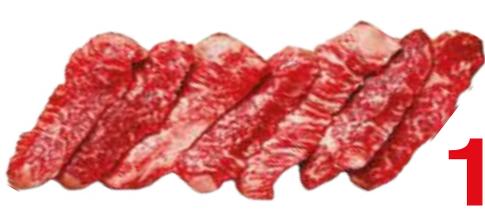
청경채 **1⁴⁸**
LB

MEAT DEALS 정육

ONLY
4 days 금/토/일/월



프라임
구이용
낙엽살 **11⁹⁸**
LB



구이용
치마살 **10⁹⁸**
LB



냉장
돼지불고기 **3⁹⁸**
LB

Available at HMART and GMART except the 2nd & Pine and UW Seattle store. Valid while supplies last. Quantities limited to stock on hand. Images may not be the same as shown. Copyright©H-MART corp. All Rights Reserved. 본 프로모션은 HMART와 GMART에서 적용되며, 2nd&Pine

GROCERY DEALS 식료품

 <p>15LB (황금들판) 백미 9.98 BAG</p>	 <p>15LB (초립동이) 5분도 현미 고시히카리 22.98 BAG</p>	 <p>36.2oz (폴무원) 짜장짬뽕 세트 H40주년 9.98 EA</p>	 <p>19oz (폴무원) 통모짜감자 핫도그 H40주년 8.98 EA</p>	 <p>13.7oz~17.1oz (폴무원) 5종 라면 5.48 EA</p>	 <p>1.21LB (1.38LB 환상) 설렁탕면 시골국물 3.98 EA</p>
 <p>2.87LB (초립동이) 우리밀 만두 3종 4.98 EA</p>	 <p>450g~510g (비비고) 볶음밥 4종 5.98 EA</p>	 <p>270g (아워홀) 죽 3종 2.48 EA</p>	 <p>480g (대림선) 주부초밥장 5.48 EA</p>	 <p>1kg (찰갑) 도산면 3.48 EA</p>	 <p>400g (동원) 한인 고랭이 6.98 EA</p>
 <p>2.8kg (청정원) 순창 생생된장 8.98 EA</p>	 <p>500g (청정원) 알룰로스 시럽 6.98 EA</p>	 <p>1.8L (롯데) 미릴 4.98 EA</p>	 <p>170g (환상) 기장미역 5.98 EA</p>	 <p>12pk/5g (환상) 도시락김 2종 3.98 EA</p>	 <p>16pk/190ml (이롬) 황성주유 8.98 BOX</p>
 <p>750g (죽방렘) 어가 국물용멸치 17.98 BOX</p>	 <p>500g (초립동이) 절단꽃게 4.98 EA</p>	 <p>340g (수협) 오징어 7.98 EA</p>	 <p>225g, 375g (삼립) 레드비 고랭이도너츠 6.98 EA</p>	 <p>300g (삼립) 도라야끼 2종 3.98 EA</p>	 <p>8pk/70ml (해태) 누가바 바밤바 4.98 EA</p>
 <p>285g, 180g (농심) 꿀과배기 바나나키 4.48 EA</p>	 <p>80g (KAKA) 8종 BBQ칩 1.98 EA</p>	 <p>8pk/160g (청우) 플랑 3종 2 FOR 5</p>	 <p>6pk/60g (세프원) 젤리 3종 3.48 EA</p>	 <p>1.5L (칼피코) 칼피코 드링크 7종 4.48 EA</p>	 <p>10btt/100ml (솔풍) 쌍화탕 9.98 BOX</p>

SEAFOOD SALE 수산

 <p>1LB (POLARBIRD) 순살갈치 6.98 PK</p>	 <p>통꽃게 4.28 LB</p>	 <p>1kg (SEATRUST) 절단코다리 7.48 PK</p>	 <p>100g 마다코 슬라이스 3.98 PK</p>
---	---	--	---

DELI SPECIALS 반찬

 <p>290g (레몬랜드) 계란장조림 4.98 PK</p>	 <p>120g (레몬랜드) 오복채 2.98 PK</p>	 <p>65g (레몬랜드) 건새우양념볶음 3.98 PK</p>	 <p>220g (레몬랜드) 흑임자두툼떡 3.98 PK</p>
--	---	--	--

KITCHEN & HOME DEALS 생필품

 <p>5~6인분 고전만능 가마솥 20cm 52.48 EA</p>	 <p>(포시존) 올리브 그린우동 IH중형 26cm 30.48 EA</p>	 <p>(대일) 실리콘 김밥말이 그릴/그레이 4.28 EA</p>	 <p>(정진) 가정용 고무장갑 1pair/대형 1.48 EA</p>
---	---	--	--

NEW ARRIVAL SUPER SALE

농심 KDH 신컵라면 3종

칠갑 들깨칼국수 & 수제비



OPEN 365 DAYS 8AM - 9:30PM

MORE DEALS IN-STORE! VISIT YOUR NEAREST LOCATION

THIS SALE ALSO APPLIES AT LYNNWOOD GMART.

Federal Way Redmond | Lynnwood Ballard | Tacoma Smart | Bellevue (8am - 9pm)

UW and Seattle (2nd & Pine) stores are excluded from the sale.

미디어한국

MEDIA HANKOOK

시애틀 No.1 한인 여행사
드림투어
206.200.3113

주소: 31434 Pacific Hwy S, Federal Way, WA 98003

정확한 진단, 빠른처리, 안전한 시공
OK Handyman
페인트 · 보일러 · 펜스
데크 · 각종 집수리 등

Cell 206.306.6700 | 206.779.5382
Email skgid7700@gmail.com

연금저축보험 / 대학자금 / 일반연금 / 양보험
조요셉 종합보험
자동차 · 사업체
주택 · 생명보험
문의 253.459.9800
개인별 맞춤설계 / 의사별 비교견적 / 신속상담

최고 실력, 최고 부품사용 개런티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비 서비스!
One Stop 그린우드 종합정비
Tony's 그린우드 오토바디
Tel. 206-706-2778
8208 Greenwood Ave N, Seattle, WA 98103

20년의 경력과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일하는
김연정 부동산
YON KIM Managing Broker
Best Choice REALTY
253.227.6673
yon@bestchoicerealtywa.com



붉은 말의 해, 봄날 최고의 보석은 '홍산호'

고베주얼그룹, 2월19일~3월1일 린우드·타코마·페더럴웨이서 보석쇼 개최

붉은 기운이 강한 말의 해를 맞아, 봄맞이 한인 주얼리 시장에서 홍산호(紅珊瑚)가 '최고의 보석'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고베주얼그룹이 2월 19일~3월 1일 린우드 H-마트 입구 향기스토아 내 특별매장(2월 19일~22일)과 타코마 부한마켓 몰 볼티나 옷집 특별매장(2월 23일~26일), 페더럴웨이 한국문화센터 특별매장(2월 27일~3월 1일)에서 특별 보석쇼를 개최한다.

<관련기사 Page-17>

"친절하고 성실한 메디케어 전문"
메디케어 상담전문 **이영이 보험**
206.407.8478
youngyi712@gmail.com

가정의학/소아과/부인과/노인과/내과/정신건강/응급치료/각종예방접종
채정희 클리닉
ADVANCED FAMILYCARE MEDICINE
모든보험 | 스킨케어
원격진료(Virtual Care) 가능
"10여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친절하게 진료해드립니다."
☎ 253-314-5742 레이크우드 부한플라자 내에 위치

광고 문의 **206.779.5382**

패티임 보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은퇴준비, 노후계획 무료상담
253-632-8904
생명보험/은퇴플랜/401K 롤오버/메디케어
E-mail : girlpatti1@gmail.com

ANIMAL CLINIC OF BENSON
종합 동물병원
253.852.6330
10700 SE 208th St #204 Kent, WA 98031

K-beauty
FIND YOUR BEAUTY
화이트 태닝 Red Light Therapy
피부에 조명을 쬐다!!
페더럴웨이점 206-670-8654
린우드점 425-561-7866

믿고 상담할 수 있는 친절함
김양미 보험
메디케어전문
매년간 의료
통역경력
☎ 206-679-8301
✉ getcare8282@gmail.com

주방장 구함

Peking Garden Chinese Restaurant

북경가든

여기!

맞습니다! 워싱턴주에서
짬뽕과 짜장면이 제일 맛있는 집

예약/주문
253.588.2399

타코마 팔도월드(Food Court) 9701 So. Tacoma Way #115 Lakewood, WA 98499



J&J

세무회계법인 로펌

" 커피 한 잔 값까지도 절세 "

작은 비용까지 챙기는 꼼꼼한 절세

" 회계사·변호사 동시 무료 상담 "

각종 서류·계약·분쟁·소송, 변호사와 함께 대비

" 사업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파트너 "

비즈니스 라이선스 · 각종 행정·법률(리뷰) 서류까지 · 비용 \$0

비즈니스 전문

절세 전문가, 회계사, 변호사들이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1201 PACIFIC AVE 600, TACOMA, WA 98402
OFFICE: 253 400 7586 / 253 203 3137(8)



김수영

206.999.7989

sykbellevue@gmail.com

“이사철의 계절, 집 장만의 계절”

Designate Broker

주택 ◆ 커머셜 (호텔, 모텔, 주유소, 투자성건물) ◆ 사업체 EB-5 (투자이민) ◆ E2 (소액투자) ◆ 부동산관리 ◆ 워싱턴주내 별장

Bainbridge Island 상가건물 & 61,855 sf. 상가건물건축 가능한(NSC)대지



\$1,890,000

- ▲ 건물 6,000sf · 대지 61,855sf(1,738평) ▲ Fully occupied, gross \$20 매우 낮은 월세 ▲ 동네 유일 성업중 그로서리 ▲ 주차 43대 가능 ▲ 20년 영업 유명 이태리언 식당 ▲ Upholstery 및 주차장 수입 포함 ▲ 현재 월 렌트 \$9,200 (곧 대폭 상승 예상) ▲ 요지 사거리 중심 Mixed Use Zone ▲ 상가·사무실·콘도·Storage 개발 가능 ▲ 유입인구 증가, 미래 투자성 높은 부동산 ▲ 우체국·법원·교회 인접 중심지

★김수영부동산에서 자신있게 추천하는 리스팅입니다.★



15년 운영 주인 은퇴하는 그로서리/델리 \$230,000 + 인벤토리 (약7만불)

- ▲ 주인 사정으로 급매 가격으로 매매 ▲ 장소 좋은 켄모어 4거리 워싱턴호수 앞에 위치 ▲ 단골손님 위주, 와인마진 30%, 담배, 로또, ATM, CCTV 설치 됨 ▲ 여름에는 \$7만-\$8만 매상 되던 동네에서 매우 평판 좋은 그로서리 현재 델리는 중단하였으나, 다시 시작하면 매상 오름. ▲ 월매상 \$45,000- \$50,000이상 ▲ 4거리에 설치된 스트리트 커머셜 사인 ▲ 13 칸 쿨러 + 3개 쿨러 설치 됨. ▲ 렌트: \$3,618 (사인 & NNN포함) ▲ 사이즈: 1,750sf. 리스: 5년 with option 가능 ▲ 성실한 세금보고 - 융자 가능

치킨 전문 식당 가격 \$124,000

- ▲ 주인 은퇴 이유 ▲ 주4일 오후 4시~밤 12시 영업 ▲ 월 순이익: \$10,000 이상 ▲ 썬렌트: \$2,350 (모두 합하여서) 리스: 5-5 ▲ 투 고 손님 많은 식당(1/3) ▲ 칸막이 방 3개, 테이블, 후드 설치되고, CCTV 설치, 쿨러, 새장비 ▲ 주 6일 열고, 오전 11시 부터 영업하면 순이익 많이 오를 가능성 큼.

시애틀 델리/그로서리 매상 월 3만불 가격 \$120,000

- ▲ 시애틀 프라임 장소/ Climate Pledge 아리나 옆 메트로 폴리탄 델리 w/그로서리 급매 가격 \$120,000 ▲ 렌트: \$4,367 + NNN ▲ 사이즈: 1,800 sf. ▲ 종업원: 파트타임 2 ▲ 리스: 7년 옵션 ▲ 월 7만불 오르던 델리와 그로서리 스토어를 주인 사정으로 급매 ▲ 장비가격으로 가까운 금액으로 매매 ▲ 다른 메뉴 추가가능한 넓은 크기, 옆에 Climate Pledge 아리나에서 스포츠경기 (아이스하키, NBA, 콘서트 등 각종 이벤트가 열릴 때 Tap beer 와 안주나 핫 푸드 바와 셀러드바를 추가하면 매상증가함.



김수영 부동산 전속 협력회사 임원들과 함께

- 강력한 협력팀**
- 융자팀: 주택융자 비영주권자 융자 상업 융자 ● 스테이징 서비스
 - 전문 사진사 ● Property management 자매회사 ● 핸디맨/건축회사



김기호

253.651.3778
khkhelix@gmail.com

김수영 부동산
주택 | 커머셜 | 사업체

206.999.7989

Designated Broker
워싱턴주 부동산 경영인 협회 2018 회장
sykbellevue@gmail.com



워싱턴주 부동산 경영인 협회
WA Korean Designated Brokers Association

1085 103rd Ave NE Bellevue, WA 98004
최신 리스팅과 정보는 sueyoungkim.com 에서 확인하세요

엠마부동산

고객님에게 맞춤으로
비즈니스를
매칭시켜 드립니다.

NEW

식당 건물 매매 140만불

- ▶ 식당 단독 건물 (시설완비) ▶ 아시안 식당 업종 추천
- ▶ 대지면적 21,000 스퀘어피트,
- ▶ 건물 면적 약 2,000스퀘어피트 ▶ 넓은 주차장

NEW

벨뷰 식당자리 32만불

- ▶ 현재 성업중인 식당으로
자세한 문의 전화주세요

NEW

세탁소 1만불

- ▶ 자리값만 받습니다

한식 요리 가능하신 분!

- ▶ 한식요리에 자신있으신 분에게 좋은 기회 매물 있습니다
- ▶ 남의 밑에서 일하지마시고 소자본으로
한식당 사장님이 되실 수 있는 절호찬스

엠 마 부동산

좋은 매물이 항상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있으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고객님께 맞춤으로 안내해드립니다.

Emma Park 206-688-0780 | Emmapark0780@gmail.com

파킹장

아스팔트, Seal코팅, 콘크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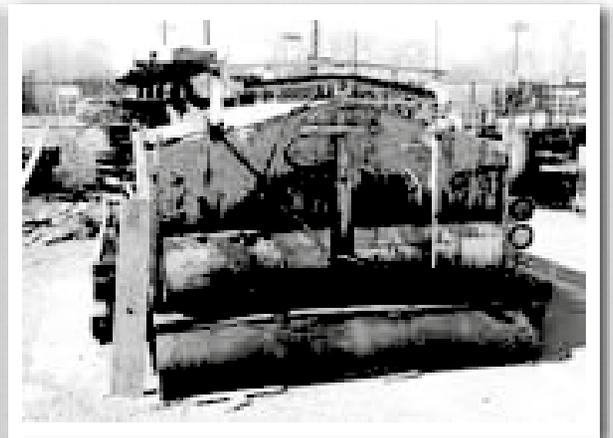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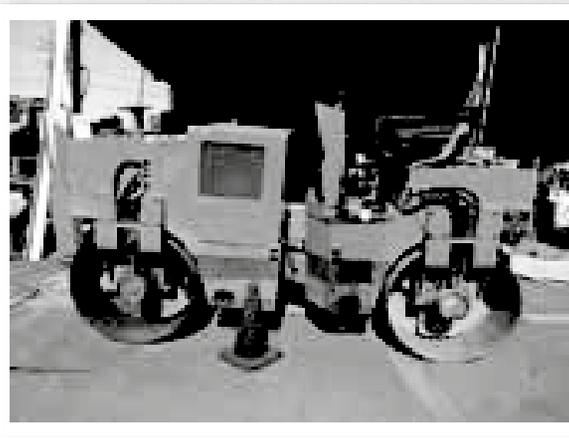


파킹장 문제 해결사!

- 체인 링크 펜스
 - 철제 펜스&게이트 설치 전문
- 최신장비 신속하고 확실한 서비스

보수공사, Line, Sign (핸디캡, 노파킹)

- 병원, 교회, 호텔, 모텔
- 게스 스테이션, 그로서리, 식당
- 쇼핑몰, 아파트, 타운하우스



Bruce & Sons Asphalt
2208 Pacific Hwy E Tacoma WA 98424

이완식

office 253.922.0200

cell 253.334.9654

시애틀서 3·1절 107주년 기념식 개최

2월 28일 오전 10시 주시애틀총영사관서...동포사회 참여 당부

광역시애틀한인회가 주관하는 2026년 3·1절 기념식이 오는 2월 28일(토) 오전 10시 주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서 거행된다. 이번 기념식은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

의 의미를 되새기고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한인 동포 지도자와 지역 단체장들을 비롯해 일반 동포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광역시애틀한인회 측은 “조국 독립을 위해 울려 퍼졌던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며 한민사회가 함께 뜻을 모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당부했다.



모두를 위한 신문

MS MEDIA GROUP CORP.

미디어한국 스포츠서울USA 오우먼즈

미디어한국 MEDIA HANKOOK

발행인 박재영
편집인 박재영

전화 206.779.5382 31411 6th Ave S
ads@mhankook.com Federal Way, WA 98003

스포츠서울USA
The Oregon Times

Media Hankook is published by MS Media Group, Corp. 33110 Pacific Hwy S, #8 Federal Way, WA 98003, on every Friday. Subscription rate and the monthly delivery rate in most areas are \$15/month for minimum 4-day services per on month.

미디어한국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1년 6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구독료 150달러를 체크나 머니오더, 또는 Periodical Postage Paid at Federal Way and
크레딧카드로 신청하시면 매주 정기적으로 additional mailing offices.
우송하여 드립니다.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Media Hankook is published weekly for \$150 MS Media Group Corp. 31411 6th Ave S
per year by MS Media Group Corp. 31411 Federal Way, WA 98003



광역시애틀한인회
GREATER SEATTLE KOREAN ASSOCIATION

신뢰받는 메신저,
소상공인을 위한 알림이 시애틀한인회



Small Business Resiliency Network
Supported by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Commerce

워싱턴주 상무부 소상공업반등네트워크
(Small Business Resiliency Network)의 파트너

“코비드로 인해 타격받은 **워싱턴주 소상공업**의 회복과 번창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도움을 공정하게 지원합니다. 특별히 주류 사회에서 소외되어 온 듯한 사각지대에 계신 동포 소상공업체에게 현사업 운영에 관련된 간단한 번역, 조언과 기술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연계 기관과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전화 : 206-669-2578



오스카양 변호사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첫 상담을 통해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 좀 더 쉽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민사소송 및 계약
- 비즈니스 법 (고용이슈 포함)
- 부동산 법
- 상속/자산 관련 법



광고 보신분에 한하여
오피스 상담시 첫 상담은 특별가로 해드립니다
전화 상담시 선불 30% Discount해드립니다

Q. 부동산 또는 사업 거래, 협상, 및 계약서 형성하는 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A. 저희는 고객들의 이런 갈등 등을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갈등이 누구의 잘못이고 소송 여부에 더 쉽게 결정 하 실 수 있도록 첫 상담을 잡으세요.

Q. 직원으로써, 아님 고용주로서 고용 분쟁 이 있으신 가요?

A. 저희가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해결토록 진심으로 노력하고, 이미 커졌으면 당신의 권익을 위해 열심히 싸우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주세요.

Q. 채무자에게서 돈을 못 받거나 채권자가 제대로 채무자의 권한을 존중 안해주나요?

A. 다양한 케이스들을 통해 채무자들이나 채권자들을 대변해오고 있습니다. 첫 상담을 하는 많은 분들이 그 전에 몰랐던 점들과 잘 못 아시고 계신 점들을 알게 되고, 그 잘못 아시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몇 십만불까지도 영향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방문해주세요.

가정법

-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은 무분쟁 이혼
- 이의 제기된 이혼 분쟁/소송
- 가족 비즈니스 및 다른 자산 분할
- 양육권 및 양육비/배우자 생활 보조비



변호사 사무실
206) 979-7081 (한글 사무직원)
360) 218-7273 (오피스)
team3@esberrylaw.com

Factoria 13555 SE 36th St STE 100 Bellevue, WA 98006
Downtown 1400 112th Ave SE STE 100 Bellevue, WA 98004

다트머스 BA
프랑스 소재 인시아드 경영대 MBA
하버드 정치 행정대 MPP
코넬 법대 JD



복음통일을 여는 6일

대참회 릴레이금식기도 주간

"내(우리)가 금식하며...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단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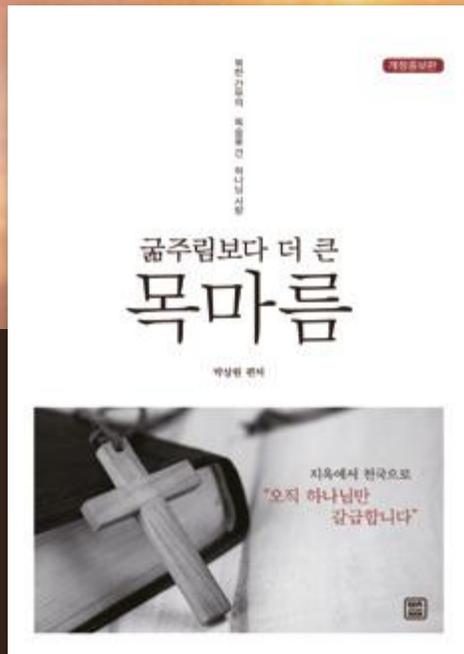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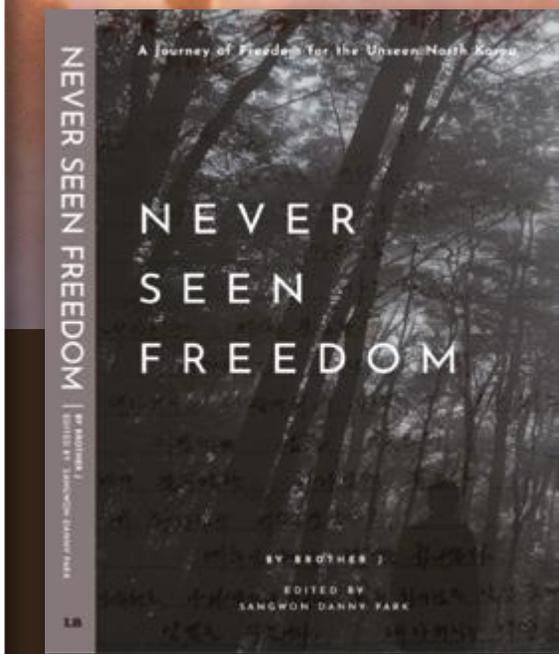
3·1절 107주년, 자유를 외쳤던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는 6일간의 릴레이 금식기도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신사참배로 시작된 분단의 죄악들을 참회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

복음통일을 주님의 방법대로 믿는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기간: 2026.2.23(월)~28(토) 6일간

▶ 방식: 하루 한 끼 이상 금식 (릴레이 참여) ▶ 내용: 요일별 성경말씀 + 회개/비전 기도문

"신의악단"도 감동할 북한지하성도들의 놀라운 증언서



www.GideonBrothers.org

기도참여와 도서구입안내

위 증언서와 최근 지하교회와 탈북증언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기드온 동족선교
GIDEON BROTHERS MISSION WORLD

16825 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el. 425.775.7477 gbmwbrothers100@gmail.com | www.gideonbrothers.org
돕는 방법: Pay to: G.B.M.W(체크오더명)로 기입해서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면, 연말세금공제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KOBE JEWEL GROUP

반지천국 린우드 타코마 페더럴웨이 순회보석쇼!

보석쇼핑, **벚꽃만개** 전을 노려라!!

이월상품 총정리!! 신제품 동시출시!!

전품목 최대 **80% OFF**



K-Bling Bling

랩다이아몬드 & 모사나이트
전품목 최대 **20% 세일**

미주 한인 사회 주목! 랩크로운(Lab-Grown) 다이아몬드 주얼리

천연과 동일한 성분 & 광채, 합리적인 가격!
고배주얼그룹 새봄맞이 특별전
정교한 세공, 빛을 극대화한 고급스러움

전품목 20% 세일 랩다이아몬드 & 모사나이트
지금 바로 행사장에서 만나보세요!

24K순금도금 패션건강팔찌
\$199부터 \$399까지

미주전역 인기폭발

건강에 품격을 더하다:
24K Gold Plated Premium Edition

빛나는 아름다움 속에 숨겨진 건강의 비밀.
여름 스타일과 건강을 동시에 잡으세요.

24K 순금도금 | 특수 마그네틱 기술 | 한정 수량 특별세일

프리미엄 한국세공 뒷장식

연말연시 선물용 최고

일본산 인공핵진주
프리미엄 비드목걸이

8mm 초특가 **\$159**부터
전무후무 미친세일!!

이월상품 \$88불 코너
화들짝 대박세일!!

진주 귀걸이 / 펜던트 / 반지 / 브로치 등
2026 새해맞이 **선물용**으로 좋은 제품

반지천국 2000여점
50~80% 대박세일!!

[린우드 4일간 특설매장]

2월 19일(목) - 22일(일)

H-마트 입구 향기스토아 내 특설매장

3301 184th St SW,
Lynnwood, WA 98037

[타코마 4일간 특설매장]

2월 23일(월) - 26일(목)

타코마 부한마켓 몰 불티나 옷집 특설매장

9112 South Tacoma Way #102,
Lakewood, WA 98499

[페더럴웨이 3일간 특설매장]

2월 27일(금) - 3월 1일(일)

한국문화센터 특설매장(H-마트 뒷편)

31411 6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카드 결제 가능 | 각종 신용카드 환영합니다.
홈페이지: Kobejewelgroup.com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합니다.

KOBE JEWEL GROUP

[기획 특집] 4명에서 40명으로, '새소망교회' 1년의 기적

존스 홉킨스 병원 목사 출신 손현주 목사의 '삶과 신앙'이 만나는 곳

■ 실력과 현장 경험을 겸비한 목회자 세계 최고의 병원이라 불리는 '존스 홉킨스'에서 아픈 이들의 영혼을 돌보던 원목 출신, 손현주 목사가 시애틀에 뿌리를 내린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결혼과 함께 이곳에 온 그녀는 곧바로 목회를 시작하는 대신, 다양한 사업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민자들의 고단한 경제적 현실을 직접 몸으로 겪으며 안정적인 기반을 닦았고, 그 '진짜 세상'의 경험은 이제 성도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는 목회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 1년 만에 10배 부흥, 그 비결은 '사랑방 목회'

1년 전, 단 4명으로 시작한 예배가 어느덧 40여 명의 성도가 모이는 따뜻한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손 목사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인들이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문턱 낮은 교회'를 꿈꿉니다.

현재 새소망교회는 세 개의 넓은 독립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경건한 예배와 영적 회복이 있는 곳

친교실(식당): 정성 어린 음식을 나누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곳

문화관: 지역사회를 위한 열린 공간

■ "교회 문턱을 낮춰 지역사회의 사랑방이 되겠습니다"

손현주 목사는 이 귀한 공간들을 한인 사회에 아낌없이 내놓으려 합니다. 슬픈 상을 당하거나 기쁜 잔치가 있을 때, 이민 생활의 애로사항이 있을 때, 혹은 새로운 교육이나 싱글들을 위한 만남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곳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담장 안에만 머물러선 안 됩니다. 우리 한인들의 경조사와 만남의 장소가 되어드리는 것이 제가 받은 복을 나누는 길입니다."

■ 천천히, 그러나 바른 신앙의 길로 이 모든 활동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참된 신앙'입니다. 손 목사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오래 곁을 지켜야 더 많은 이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길, 목회자의 길이 험난하지만 가치있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삶의 무게에 지친 분들,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소망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새소망교회의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그곳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된 목자와 이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내]

▲담임목사: 손현주

▲주소: 31411 6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예배와 모임 그리고 공간사용 문의: 253)508-8902



새로운 교회 간판.



페더럴웨이 새소망교회 외부/내부 모습.





허만 법률 그룹

3대를 이어온 변호사 가문

창립자 Karl Herrmann(1915-1997) : 전 상원의원 및 보험위원



“고객 한분 한분을 가족처럼 소중히 여깁니다”

교통사고 전문 허만 법률 그룹

사고로 다치셨습니까?
저희가 곁에 있습니다

창립70년이 넘게, 저희는 신뢰와 믿음, 그리고 뛰어난 실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변론해 왔습니다.
고객을 위한 것이라면 작은 일도 크게 보는 변호사
오늘도 고객만을 생각하는 변호사 찰스허만이 여러분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시애틀 · 타코마

페이지 리 (Paige K. Lee)

Cell: 206.773.8180
Direct: 206.492.7722
Fax: 206.492.7723
E-mail: paige@hlg.lawyer

교통사고

- 각종 상해사고/ 목허리부상
- 부당한 죽음/ 보행자 사고
- 뇌손상 사고/ 낙상사고
- 오토바이 사고/ 비행기 사고
- 제조물로 인한 상해



시애틀 · 타코마

줄리 황 (Julie Hwang)

Cell: 206.409.4611
Direct: 206.457.4200
Fax: 206.457.4201
E-mail: julie@hlg.lawyer

www.hlg.lawyer

시애틀 사무실
505 5th Ave. S, Suite 330 Seattle, WA 98104
T_206-625-9104
F_206-682-6710

타코마 사무실
1535 Tacoma Ave. S. Tacoma, WA 98402
T_253-627-8142
F_253-627-1835

올 부동산 (구) 태양 since 2002 Year (RealtyAll.com)



주택/아파트/상가/모텔/호텔/주유소/그로서리/식당/세탁소/각종 사업체/땅/부동산 건물 관리
 고객 여러분의 귀중한 자산을 늘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206.228.4989
도병호 대표 Broker
 Brian Do
 briando@realtyall.com



253-205-5553
도은영 Monica Kim
 eunnyoung@gmail.com



가격 \$5,860,000

Everett 66 Unit 모텔
 빌딩 19872 Sq.Ft / 대지 42253 Sq.Ft

NEW

가격 \$6,200,000
 매상 \$1,600,000

NEW

가격 \$1,690,000

SOLD

가격 \$649,950
 Federal Way / 방 3개 / 화장실 2.25 / 1870 Sqft



GAS STATION	GS0326	마진
그로서리 월매상	\$110,000	30%
가스 갤런/월	60,000	40 CENTS
가격	\$3,100,000	

GAS STATION	GS1526	마진
그로서리 월매상	\$115,000	35%
가스 갤런/월	60,000	60 CENTS
가격	\$4,400,000	

GAS STATION	GS1426	마진
그로서리 월매상	\$30,000	30%
가스 갤런/월	30,000	30 CENTS
가격	\$1,200,000	

GAS STATION	GS1126	마진
그로서리 월매상	\$90,000	38%
가스 갤런/월	9,000	90 CENTS
가격	\$2,500,000	

GAS STATION	GS1726	마진
그로서리 월매상	\$110,000	40%
가스 갤런/월	25,000	75 CENTS
GAS CONTRACT	NO	
가격	\$3,700,000	

▶ **올부동산과 함께할 에이전트(Broker)를 모집합니다.**

김 원현	206-370-2382	이 은영	206-377-9192	HANNA LEE	253-365-8324	KIM, JONG G	206-852-9855
이 순열	253-335-1965	이 덕기	206-229-7407	이종성	509-863-6212	KIM, MYUNG JOON	206-228-4989
제니퍼 오	206-228-0591	KIM, ARTHUR J	206-859-9988	김용규	206-335-8949	KIM, LOUIS	253-722-3067
이 내권	206-793-0822	KIM, VERONICA	206-436-4989	부진실	253-905-2772	TERRY CHOI	213-220-7220
이 영철	253-777-6714	황 인성	206-306-4336	김강식	206-949-6197	www.realtyall.com 에서 리스팅을 확인!	
정 정이	206-200-1444	엠마 박	206-688-0780	ROBERT KIM	253-576-3939		



상업용 부동산은 김원현 부동산



김원현 Won Kim
206.370.2382
 wonkim1974@hotmail.com

비즈니스 파실분/사실분 연락주세요

테리야기 / 음식점

1.테리야끼	\$550,000	일매상: \$4,000
2.테리야끼	\$530,000	일매상: \$3,500
3.테리야끼	\$230,000	일매상: \$1,700
4.테리야끼	\$280,000	일매상: \$2,300
5.테리야끼	\$180,000	일매상: \$2,000
6.테리야끼&Sushi	\$50,000	일매상: \$1,000 (Owner Carry 가능)
7.테리야끼 (부동산포함)	\$830,000	일매상: \$2,200

Grocery

1. \$105,000	월매상: \$55,000
2. \$280,000	월매상: \$65,000
3. \$300,000	월매상: \$80,000
4. \$350,000	월매상: \$90,000
5. \$600,000	월매상: \$110,000
6. \$100,000	월매상: \$45,000 (Owner Carry 가능)

Motel

\$1,750,000 Year Income: \$450,000 (Room: 29)

맛있고 푸짐한 런치뷔페! 11 AM - 3 PM

정갈한 맛! 포장(Buffet-to-Go!) \$10.95/파운드

\$21.95
 11am~3pm



채식·일반식, 수프, 샐러드, 디저트까지! 픽업 주문 시 무료 디저트 제공!
 각종 모임과 오피스 파티 케이터링도 예약 가능! 시간을 절약하세요!



Call: 253-529-9292

EAST INDIA GRILL

31845 Gateway Boulevard S. Federal Way (Gateway Center Plaza)
 ■ 영업시간 : 일~목 : 11AM ~ 9PM / 금,토 : 11AM ~ 10PM
 ■ 홈페이지 : www.eastindiagrillwa.com





WA Society of Korean CPAs
워싱턴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돕는

이동은 공인회계사
Diane Lee, CPA

☎ 425-678-0521

✉ dianelee CPA@hotmail.com

🏠 www.dianelee CPA.com

18514 Highway 99 Ste E,
Lynnwood, WA 98037

SKJ & Company, P.S.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고객의 확실한 길잡이

정세계 공인회계사
Seke Jung, CPA

☎ 206-367-6782

✉ info@skjcpa.com

🏠 www.skjcpa.com

19909 Ballinger Way NE Ste 100,
Shoreline, WA 98155

SHK GROUP PLLC
CPA & BUSINESS ADVISORS

Trusted Tax & Accounting

김성훈 공인회계사
Seong Hoon Kim, CPA

☎ 425-869-3670

✉ info@shkgroup.com

🏠 www.shkgroup.com

9 Lake Bellevue Dr, Ste 216, Bellevue, WA 98005 (Bellevue Office)
34400 Pacific HWY S, Federal Way, WA 98003 (Federal Way Office)

업무는 신속, 정확하게, 세무감사는 확실하게, 공금증은 시원하게

김윤중 공인회계사
Arnie Kim, CPA

☎ 253-984-9530

✉ arnie@kkcpa.us

🏠 www.kimnkimcpa.com

9602 S. Tacoma Way, Ste B
Lakewood, WA 98499 (Tacoma Office)

업무는 신속, 정확하게, 세무감사는 확실하게, 공금증은 시원하게

김흥중 공인회계사
Dennis Kim, CPA

☎ 425-640-3435

✉ dennis@kkcpa.us

🏠 www.kimnkimcpa.com

23416 Hwy 99, Ste B
Edmonds, WA 98026 (Edmonds Office)

업무는 신속, 정확하게, 세무감사는 확실하게, 공금증은 시원하게

김덕중 공인회계사
James Kim, CPA

☎ 425-223-5577

✉ james@kkcpa.us

🏠 www.kimnkimcpa.com

11542 NE 21st Street
Bellevue, WA 98004 (Bellevue Office)

PH CPA, PLLC
ACCOUNTING & TAX SERVICES

황바로 공인회계사
Paul Hwang, CPA

☎ 425-742-7675

FAX : 425-650-2972

✉ info@phcpapl.com

4629 168th St SW Ste H
Lynnwood, WA 98037

Sora Son CPA, LLC.

손소라 공인회계사
Sora Son, CPA

☎ 425-361-7942

✉ sora@soncpa.net

19105 36th Ave W Ste 209,
Lynnwood WA 98036

ALISA NA
CPA

명확한 맞춤회계

나은숙 공인회계사
Alisa Na, CPA

☎ 425-744-2742

✉ Service@alisanacpa.com

🏠 alisanacpa.com

8319 238th St SW,
Edmonds, WA 98026

투명한 관리, 확실한 신뢰로 비즈니스의 내일을 함께 그립니다.

김호순 공인회계사
Danielle H.S. Kim, CPA

☎ 253-839-9301

✉ dkimcpa1@hotmail.com

🏠 www.daniellekimcpa.com

28815 Pacific Highway S. Ste 8,
Federal Way, WA 98003

ASPEN
FINANCIAL & TAX SERVICES

Your trusted CPA for personal and business finances

사브리나향 공인회계사
Sabrina Hwang, CPA

☎ 425-373-0380

✉ sabrinahwang@cpa.com

🏠 www.aspenfinancialtax.com

14205 SE 36th St., Suite 100,
Bellevue, WA 98006

저희 WSKCPA
(회장 정세계 / 총무 김호순)에서는
정기세미나와 미주총회 등 각종 활동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회계사님께서는 저희
협회(info@wskcpa.org)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SKCPA
WA Society of Korean CPAs
워싱턴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

뱅크오브호프 설날 송금 거래 건수 1819건 기록

전년 대비 송금액 감소... "지속적인 고객 참여에 감사"

뱅크오브호프가 지난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설날 특별 해외송금 프로모션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뱅크오브호프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라

면 올해 설날 송금 행사 기간 동안 총 1819건, 약 459만5617달러 규모의 송금이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918건, 약 648만9481달러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송금 건수와 금액 모두 소폭 감소한 수치다. 은행 관계자는 이번 프로모션이 설 명절을 맞아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

련됐으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를 전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국가로의 송금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뱅크오브호프는 앞으로도 명절 시즌을 중심으로 다양한 금융 혜택과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퇴에 200만 달러 필요... 거의 아무도 준비 안 됐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가 "미국인 대부분이 편안한 은퇴를 할 만큼 충분히 저축하지 못했다"고 경고했다. 경제전문지 포춘에 따르면 핑크 CEO는 2025년 연례 주주서한에서 은퇴 준비 부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다며, 특히 X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면 상황이 "더 어렵고 더 험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블랙록이 등록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편안한 은퇴'를 위해 필요하다고 답한 금액은 평균 약 210만 달러였다. 이에 대해 핑크 CEO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라며 "하지만 거의 아무도 그 수준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

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조사 응답자의 62%는 은퇴 자금으로 15만 달러 미만을 저축했다고 답했다. 이는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의 약 7% 수준에 불과하다. 핑크 CEO는 특히 X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 문제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X세대는 401(k)에 주로 의존한 첫 세대이며, 이러한 추세는 밀레니얼과 Z세대로 확대되고 있다"고 그는 밝혔다. 401(k)는 개인이 스스로 운용하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로, 고용주가 운용을 책임지는 기존 연금과 달리 개인이 투자·인출 전략을 직접 결정해야 한다. 핑크 CEO는 401(k)가 완전히 잘못된 제도라고 보지는 않지만, "은퇴 설계의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라는 점

에서 대중적 은퇴 해결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과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며, 의무적 저축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퇴자들이 충분히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쓰지 못하는 현상도 문제로 지적했다. 핑크 CEO는 "노후 자금이 바닥날까 두려워 꿈을 줄이고, 즐거움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빌 샤프가 이를 '금융에서 가장 어렵고 고약한 문제'라고 표현한 점을 인용하며, 해결은 어렵지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연방준비제도(Fed) 자료에 따르면 50~60대 은퇴 임박 가구의 절반가량은 401(k)나 개인퇴직계좌(IRA)에 저

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사회보장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월 평균 약 2,000달러 수준인 사회보장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사회보장기금 신탁기금은 2030년대 중반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급여가 약 20~25% 삭감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블랙록은 핑크 CEO의 리더십 아래 목표연도펀드(Target Date Fund)와 연금(Annuity) 솔루션 등 은퇴 상품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특히 라이프패스 페이체크(LifePath Paycheck) 상품은 목표연도펀드에 보장형 소득 기능을 결합해, 59.5세부터 연금 형태의

정기 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핑크 CEO는 "이와 같은 상품이 향후 기본 은퇴 투자 전략이 될 것"이라며, 은퇴 후 월급처럼 예측 가능한 소득 흐름을 제공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생활비 부족으로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언리타이어(unretire)'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 의료비·요양비 부담 확대가 겹치면서 은퇴 준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핑크 CEO의 이번 경고는 단순한 투자 조언을 넘어, 미국의 은퇴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혁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조이스애틀러스>

J-1 · H2B · EB3

취업스폰서를 모십니다

★ **한국에서 미국에 취업을 희망하는 신청자에게 기회를 주고, 현재 사업체 운영에 믿고 신뢰할 직원을 원하십니까?** 수시로 직원 부족으로 고용주가 대신 일해야 하는 고민을 글로벌 인재 양성 리쿠르먼트 회사 **Entryusa.co** 에서 해결해드립니다.

▶ **자격기준:** 현 사업체가 워싱턴주에 정식 등록되어 있고, 2년 이상 세금 보고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사업체 종류:** 호텔, 식당, 그로서리, 스모크 샵, 세탁소, 유통 회사, 전기 및 전화 회사, 델리 및 제과점,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미용 및 네일, 스킨케어, 회계사무직, 법률사무직, 요가, 필라테스 강사 등

연락은 먼저 이메일로 해주세요. ▲Email: mynwcf23@gmail.com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을 받은 후 직접 고용주와 대화를 통해서 상의하겠습니다



워싱턴주 유일의

한국어 방송

라디오한국이 달라져요!

27주년을 맞은 라디오한국이
뉴스, 정보, 음악중심으로
편성표를 대폭 개편합니다!

KSUH 1450 AM
KWYZ 1230 AM
FM 102.1 MHz



Tel 253-815-1212

Email : info@radiohankook.com

31919 1st Ave S, suite 206 Federal Way, WA. 98003

비즈니스 탐방-고베주얼그룹 특별기사

붉은 말의 해, 왜 '홍산호'가 다가오는 봄날 최고의 보석으로 떠오르나

고베주얼그룹, 2월 19일~3월 1일 린우드 · 타코마 · 페더럴웨이서 보석쇼 개최

붉은 기운이 강한 말의 해를 맞아, 봄맞이 한인 주얼리 시장에서 홍산호(紅珊瑚)가 '최고의 보석'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비즈니스 일정이 본격화되는 3월을 앞두고 계약 · 승진 · 자금 흐름을 중시하는 여성 고객들 사이에서 "올해는 레드 포인트가 운을 연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며, 홍산호 문의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가 주목하는 지점은 홍산호가 가진 상징성과 실용성의 결합이다. 전통적으로 붉은색은 '막힘을 뚫고 시작을 여는 기운'을 뜻해, 3월, 4월은 새 출발의 의미가 강한 시기에 선호도가 높다. 여기에 홍산호는 루비처럼 강렬하되, 금 · 진주 · 다이아와의 조합이 자연스러워 오피스 룩, 미팅룩, 격식 있는 모임까지 폭넓게 어울린다는 평가다. 비즈니스 여성들이 홍산호를 찾는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얼굴 톤을 밝히는 붉은 포인트가 첫인상과 존재감을 즉시 끌어올린다.

둘째, 봄 시즌에는 가족 행사 친목 모임 · 고객 · 회의 등 '사람을 만나는 일정'이 많아, 작은 액세서리 하나로도 기품과 자신감을 빠르게 보완할 수 있다. 셋째, "재물운을 부르는 새해 아이템"이라는 스토리가 더해지며, 단순 장신구가 아니라 의미 소비(meaning consumption)로 확장되고 있다. 실제 판매 현장에서는 홍산호 반지 · 펜던트 · 브로치가 핵심 품목으로 꼽힌다. 반지는 결심과 실행을 상징해 "올해 반드시 이룰 목표가 있는 고객"이 찾고, 펜던트는 심장과 가까운 위치에서 존재감을 주기 때문에 "봄철 대외 활동이 많은 고객"에게 선호된다. 브로치는 재킷 · 코트 · 원피스에 즉시 포인트가 되어 "프레젠테이션 · 네트워킹이 잦은 고객"의 선택이 늘고 있다. 고베주얼그룹은 봄철을 맞아 '붉은 말의 해 레드 주얼리 제안'을 강화하고, 고객의 직업 · 피부톤 · 얼굴형 · 착용에 맞춘 맞춤형 홍산호 스타일링 상담을 제공한다.



업계 관계자는 "봄 기운이 상품과 사이즈 선택 폭이 가장 넓고, 인기 디자인이 빠르게 소진되기 전이라 '지금'이 가장 유리한 시점"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전했다.

다가온 봄, 단 한 가지 보석을 고른다면 올해는 '붉은 기운'을 품은 홍산호로 첫 운과 첫 인상을 동시에 잡아보는 선택이 주목받고 있다.

〈시애틀 순회 보석쇼 일정〉

〈린우드 일정-오전 10시-오후 6시〉

- ▲일시: 2026년 2월19일(목)~22일(일), 단 4일간
- ▲장소: H-마트 입구 향기스토아 내 특설매장
- ▲주소: 3301 184th St SW Lynnwood, WA 98037

〈타코마 일정-오전 10시-오후 6시〉

- ▲일시: 2026년 2월 23일(월)~26일(목), 단 4일간
- ▲장소: 타코마 부한마켓 몰 볼티나 옷집 특설매장
- ▲주소: 9112 South Tacoma Way #102 Lakewood, WA 98499

〈페더럴웨이 일정-오전 10시-오후 6시〉

- ▲일시: 2026년 2월 27일(금)~3월 1일(일), 단 3일간
- ▲장소: 시애틀한국문화센터 특설매장(H-마트 뒷편)
- ▲주소: 31411 6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스타벅스 CEO, 직원 평균의 '1,794배 보수' 논란

시애틀에 본사를 둔 상장기업 스타벅스의 최고경영자(CEO)가 평균 직원 임금의 1,794배에 달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임금 격차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17일 시애틀타임스에 따르면, 스타벅스 CEO 브라이언 니콜은 2024년 마지막 4개월 동안 9,600만 달러가 넘는 보상 패키지를 받았다. 이는 당시 상장기업 CEO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규모다. 해당 보수 대부분은 주식 보상 형태로,

니콜이 이전 직장인 치폴레에 남아 있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보상을 대체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니콜의 연간 보수는 약 3,100만 달러로 전년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워싱턴주 내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이 같은 고액 보수는 평균 직원 임금과 비교해 1,794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스타벅스 노동조합 '스타벅스 워커스 유나이티드' 측은 경영진과 일선 직원

간 임금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고 비판하고 있다. 2021년 노조 결성을 주도했던 미셸 아이젠은 "회사는 수익이 크게 늘었다고 홍보했지만, 현장 직원들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다"며 "숫자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CEO 보수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주식 기반 보상 확대를 꼽는다. 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스톡옵션과 주식 보상이 크게 늘었고, 이는 CEO와 중간 임금 직원 간 격차를 더

욱 벌리는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이 높은 유통·서비스 기업일수록 격차가 두드러진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상장기업 CEO 보수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직원 임금도 상승하고는 있지만 경영진만큼 빠른 속도는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례는 워싱턴주 대기업들의 구조적 임금 불균형 문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다. <조이시애틀뉴스>



스타벅스 CEO 브라이언 니콜

<p>Federal Way 병원 스페이스 렌트 253-941-6779 chachiropractic@gmail.com</p>	<p>Office space Rent for L.Ac, DPT, LMT or other healthcare professionals 3Tx rooms, Reception area , restroom Ask for Lease special !</p>
--	---



워싱턴 한인 선교합창단 단원 모집

— Washington Korean Mission Choir —

🎵 모집대상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과 선교에 열정이 있는 **크리스천** 누구나

📅 연습안내

🕒 연습 시간: 매주 주일 오후 5~7시

📍 연습 장소: 시애틀물댄동산교회

17620 60th Ave W, Lynnwood, WA 98037

📄 지휘 | 허정덕 목사

- 서울대학교 성악과 졸업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석사 졸업 (합창지휘 전공)
-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합창지휘 박사 과정 수료
- 現 시애틀물댄동산교회 담임
- 現 동지선교회 남쪽방송 Service Director



☎ 문의

조현숙 총무: 509-859-2844

37년 전통의 워싱턴 한인 선교합창단이 허정덕 목사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합니다! (1989년 창단)

UW 한인 커리어 동아리 'KoJobs', 연례 기업 세미나 개최

2월 21일 오후 3시 UW서...20명 전문가 멘토 참여, 한인 학생 취업 지원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한인 취업·커리어 동아리 'KoJobs'가 오는 2월 21일(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연간 최대 행사인 '기업 세미나'를 개최한다. KoJobs는 UW 한인 학부생들의 학업과 대외활동, 인턴십 및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커뮤니티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네트워킹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특히 이번 기업 세미나는 동아리의 대표 행사로, Business, IT·Engineering, Bio·Health, Law·Social Science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활동 중인 약 20명의 전문가 멘토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학생들이 각 산업과 직무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커리어 개발과 취업 준비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얻는 한편 업계 전문가들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사는 주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H Mart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멘토를 포함해 100명 이상의 참가자가 함께할 것으로 예상된다. UW 한인 학부생뿐 아니라 시애틀 지역 한인 대학원생과 직장인, 취업 준비생들도 참석해 폭넓은 네트워킹의 장이 될 전망이다.

KoJobs 박시원 회장은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선배들과 직접 만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한인 학생들의 커리어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될 전망이다. KoJobs 박시원 회장은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선배들과 직접 만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한인 학생들의 커리어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체온 36.5도" 피부도 사람처럼 따뜻... '초현실 로봇'

중국 내 성인 여성 모습을 한 휴머노이드 로봇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과학 전문매체 인터레스팅엔지니어링은 최근 중국의 로봇 회사 드로이드업이 상하이에서 처음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모야'를 소개했다. 매체는 인간처럼 행동하도록 설계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났다 "며" 세계 최초의 안전한 생체모방형 지능형 로봇"이라고 설명했다. 키 165cm에 무게 약 32kg으로 성인 여성과 비슷한 체형을 갖춘 모야는 눈동자를 움직여 시선을 맞추고,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이는 등 인간의 미세 표정을 재현할 수 있다고

한다. 체온 또한 32~36도로 맞출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드로이드업은 "모야의 보행 자세 정확도는 92%"라며 "안정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다"고 했다. 드로이드업은 모야를 가정용 로봇, 나아가 의료·교육 등에도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모야는 이르면 올해 말 시장에 출시될 계획이다. 초기 가격은 약 120만위안(한화 2억5300만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모야의 외형과 행동을 놓고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SCMP는 "일부 이용자는 로봇의 사실적 모습에 감탄한 반면,

다른 이들은 인간과 너무 닮은 움직임이 외려 불편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모야는 드로이드업의 기존 휴머노이드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회사는 핵심 기술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은 최근 '로봇굴기'라는 말이 나올 만큼 로봇 생산과 고도화에 힘을 쏟고 있다. 중국은 지난 9월 휴머노이드 로봇 200여대를 동원한 대형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당시 로봇은 '칼군무'를 선보였고, 이 가운데 한 대는 공중에서 와이어를 타고 무대 위를 가로지르기도 했다. 중국 증권시보는 "이번 공연은 춤, 단막극,



마술, 무술, 노래, 패션쇼 등 다양한 예술 형식을 융합했다"며 "중국 로봇 산업이 '기능 실행' 단계를 넘어 '문화 예술'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기사제휴=미주해럴드경제) <조시애틀뉴스>



Global Real Estate Express Commercial

Investment Property Sale and Property Management 전문회사

Commercial 상가, HOTEL, MOTEL

- ▶ Tacoma 9 Unite Asking \$3,150,000
- ▶ Federal Way 15,041 SF Office Building, 병원건물 Asking \$2,800,000

Shelton Super 8 / 39 Rooms

Gross +/- \$1,060,000/2024

Asking \$4,700,000 에서 **\$3,700,000 급매**

After terminating the franchise contract, operating independently results in an annual net income of approximately \$250,000 to \$300,000 프랜차이스 계약해지후운영하면 net income 약25만에서 30만불 1년수입예상

TERIYAKI / SUSHI

- **TERIYAKI / Asking \$570,000**
+/- \$3,000/DAY Tacoma Pacific Ave,\$2,600+N.N.N. \$921 Lease 10/10, Option Term 7days open
- **Teriyaki & Sushi / Asking \$175,000**
+/- \$1,700/Day Gig Harbor, 현재 \$3,091 / New Lease

세탁소 Asking \$320,000

Gross\$35,000/M. Kirkland 좋은동네 2008년 장비, 직원2명&부부, 은퇴Sale , Rent \$3,600+N.N.N.



GLOBAL R.E. EXPRESS Broker SANG KYU YI 이상규 206-612-8962

8544 S TACOMA WAY #B LAKEWOOD, WA 98499 • Real4949@gmail.com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명규 회장이 정부 입찰에 관해 설명을 하고 있다.



2025년 한인상공회 타운홀 미팅 10회 모두 참석한 박미라씨에게 감사장이 전해졌다.

워싱턴주 한인상공회 새체제 첫 타운홀

지난 2월 14일 벨뷰에서...주정부 계약·SBA 대출·POS 사기 등 의제 나눠 오는 11월까지 매월 두 번째 토요일 오전에 벨뷰 등지서 타운홀 개최 예정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KACCWA)가 오명규 회장·은지연 이사장 체제 출범 후 첫 타운홀 미팅을 2월 14일 오전 벨뷰 캐피털원 카페에서 열었다. 한인 소상공인, 주 정부 기관 관계자, 한인회, 언론인, 창업 준비생 등 다양한 참석자가 모인 가운데 주 정부 계약 기회, SBA 대출 정책 변화, POS 단말기 환불 사기 대응 등 세 가지 핵심 의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명규 회장은 "지난해 총 10회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고 올해도 2월부터 11월까지 매달 두 번째 토요일 오전에 10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올해는 타코마 등 다른 지역 소상공인들의 접근성을 위해 장소를 바꿔가며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의제는 워싱턴 주 정부 계약 기회였다. 오명규 회장은 직접 HVAC(냉난방·환기) 회사를 운영하며 주 정부에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진입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워싱턴주 정부는 사실상 주 내 가장 큰 바이어"라며 "한국의 조달 사업과 달리 미국에서는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진입했다고 자동으로 수익이 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 회장이 제시한 주 정부 계약 진입 단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시장 조사가 필요하다. 주 정부라는 단일 기관이지만 실제 구매자는 다양한 부서에 걸쳐 있어 구매 습관과 수요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50달러짜리 센서부터 5만 달러 규모의 보일러 교체까지 품목이 다양하므로 각 기관의 구매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판매를 높이는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시스템 등록과 가시성 확보가 중요하다. 워싱턴주 전자 비즈니스 시스템(WEBS)에 업체를 등록해 정부 기관이 물품 구매 시 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MRSC(Municipal Research and Services Center)에도 등록해 카운티 등 지방 정부 구매 기회에도 노출시켜야 한다.

마이너리티 비즈니스 인증도 핵심 전략이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 모두 여성(Women), 소수인종(Minority), 참전용사(Veteran), 장애인(Disabled) 소유 기업에 우선 구매 쿼터를 부여하고 있다. 주 정부 차원에서는 OMWBE(Office of Minority & Women's Business Enterprises) 인증을 받으면, 대형 프라이머리 계약자가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때 전체 계약 금액의 10~25%를 인증 업체에 배정해야 하는 의무가 적용된다. 연방 정부 계약에는 DBE(Disadvantaged Business Enterprise) 인증이 필요하다. 오 회장은 입찰에 떨어졌을 때도 담당 공무원에게 탈락 사유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계약이 2~5년 후 다시 열리면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3월부터 건설업 분야 소기업을 위한 주 정부 MC 프로그램(교육·기술 지원 포함)이 시작되므로, 건설업 종사 한인 사업자들의 참여를 권했다. 이날 미팅에서 건설업 경력의 이수영씨는 자신의 사업 이력을 통해 정부 계약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기회를 생생하게 전했다.

현재는 DSHS(사회보장서비스부)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과 환자를 위한 소규모 가정 환경 개선 및 관리 사업을 하고 있다. 그는 "큰 프로젝트에서 겪었던 리스크를 교훈 삼아 지금은 좀 더 안정적인 분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마이너리티 비즈니스 인증 제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 모두 여성(Women), 소수인종(Minority), 참전용사(Veteran), 장애인(Disabled) 소유 기업에 우선 구매 쿼터를 부여하고 있다. 주 정부 차원에서는 OMWBE(Office of Minority & Women's Business Enterprises) 인증을, 연방 정부 계약에는 DBE(Disadvantaged Business Enterprise)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가장 뜨거운 논의가 오간 의제는 SBA(중소기업청) 대출 정책 변화였다. SBA

는 2월 3일 영주권자(그린카드 보유자)를 주요 대출 프로그램에서 완전 배제하는 새 정책을 발표했으며,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핵심 변경 내용은 이렇다. 가장 인기 있는 중소기업 대출인 7(a) 프로그램 신청 시 사업체 소유주 100%가 미국 시민권자여야 한다. 기존에는 영주권자가 최대 5%까지 지분을 보유해도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 예외 규정이 완전히 폐지됐다. 부동산 매입 대출인 504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시민권자에게만 제한된다. 오 회장은 "이 정책이 영주권자의 모든 사업 활동이나 대출을 막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정부 보증 대출이라는 가장 유리한 자금 조달 수단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다는 것이 핵심 문제"라고 짚었다. 특히 504 프로그램을 통해 10% 다운페이먼트로 상업용 건물을 매입해 사업장을 확보하고 15년 상환 후 건물을 보유하는 전략이 많은 한인 사업자에게 활용돼 왔는데, 이 통로가 막히게 된 것이다.

이날 미팅에 참석한 주시에틀 총영사관 전종화 영사는 재외동포 현황 통계를 바탕으로 영향 규모를 추산했다. 워싱턴주 전체 소상공인 약 69만5000명 중 한인 동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8%로 약 9000명이며, 이 가운데 영주권자 비율이 약 33%인 약 3000명이다. 아시아계 SBA 대출 이용률(약 27%)과 그중 실제 해당자 비율을 고려하면, 직접 영향을 받는 워싱턴주 한인 영주권자 소상공인은 최대 약 200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전 관계자는 "숫자로 보면 작을 수 있지만 해당 당사자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한인 동포 은행들도 고객을 잃게 되는 만큼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참석자들은 당장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오 회장은 현재 SBA 대출이 진행 중인 경우 3월 1일 이전에 최대한 빨리 승인을 받을 것, 기존 대출 보유자는 향후 지분 구조 변경에 주의

할 것,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을 고려할 것 등을 제안했다. 또한 SBA 대출을 대체할 수 있는 커머셜 론(일반 은행 대출) 등 대안 금융 상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 중 금융 경험자는 "현재 SBA 론 이자율은 프라이م 레이트(6.75%)에 약 2%가 가산된 8.75% 수준인데, 커머셜 론도 이자율 자체는 거의 비슷하다"면서도 "SBA는 정부가 대출금의 70~75%를 보증하기 때문에 담보가 부족해도 대출이 가능했던 반면, 커머셜 론은 은행이 자체 자금으로 대출하므로 담보 요건이 훨씬 까다롭고 심사가 엄격하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결국 SBA 대출 배제는 이자율의 문제가 아니라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통로 자체가 좁아지는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주 정부 차원의 대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오 회장은 "워싱턴주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에서 진행하는 스몰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이 있지만, 연방 정부 예산 삭감의 영향으로 주 정부도 재원이 크게 줄었다"며 "프로그램이 폐지된 것은 아니지만 혜택 규모와 대상자 수가 축소되는 추세"라고 전했다. 상공회의소는 3~4월 중 은행권 전문가를 초청해 SBA 대출 대안과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집중 논의하는 후속 미팅을 마련하기로 했다. 워싱턴주 노동산업부(L&I) 한인 담당관 김지원씨도 후속 미팅에 관련 전문가를 연결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미팅에는 워싱턴주 노동산업부(L&I) 한인 커뮤니티 담당관 김지원씨가 참석해 한인 사업자와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를 소개했다.

김 담당관은 "L&I는 사업주 편도 노동자 편도 아닌 안전한 근로환경을 관장하는 정부 기관"이라며 "한인분들이 L&I를 무시하시실 필요 없이 한국말로 편하게 문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새 법안을 소개하며 "직장에서 이민 신분을 이용해 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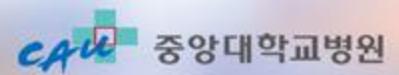
박하거나 불공정한 대우를 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L&I가 관장한다"고 안내했다. 한인 근로자나 사업주 누구든 고충이 있으면 본인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고,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한국어 자료도 풍부하게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참석자가 "L&I가 노동자만 보호하는 기관 아니냐"고 질문하자 김 담당관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위해 일하는 기관이며, 정확한 법을 알려주고 모두가 법을 잘 따르도록 하는 역할"이라고 명확히 했다. 건설업에 참석자는 "실제로 경험해 보면 L&I가 노동자보다 사업자에게 더 까다로운 면이 있다"고 현장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오 회장은 "김 담당관이 여러 커뮤니티 행사에 꾸준히 참석하며 한인 사회와 정부 기관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사업주든 근로자든 노동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면 부담 없이 연락하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한인 소상공인 대상 POS 단말기 환불 사기 피해 사례와 예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고, 온라인 네트워킹 활성화 방안, 한인회·상공회의소·언론 간 협력 강화 등도 화제에 올랐다. 페더럴웨이 한인회 이구 사무총장은 "페더럴웨이가 생긴지 17년째이지만, 막상 한인분들이 어려울 때 제일 먼저 한인회를 떠올리고 연락하는 구조가 아직 안 되어 있다"며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다양한 단체와 연합해 소상공인 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생각을 밝혔다.

오명규 회장은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함께 정보를 나누고 대안을 찾아가자"며 "매달 두 번째 토요일 타운홀 미팅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하며 미팅을 마무리했다. 상공회의소는 월간 뉴스레터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는 사무총장 Hayden Hwang(312-841-3222)에게 하면 된다. (시애틀코리아데일리)



휴람 - 중앙대학교병원 해외동포 특별가 검진프로그램

2025.1.1. ~

휴람 고객만을 위한 맞춤형 검진프로그램

휴람 고객을 위한 체류기간 내에 빠른 진료 연계 제공



기본검진



남성검진



여성검진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해외동포특별가 프로그램 혜택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람 기본 항목

프로그램	검사항목
종합검진 기본항목	신체계측, 체성분분석, 안과(안압, 안저, 시력), 청력, 폐기능, 흉부촬영(전면, 측면), 심전도, 혈액형, 일반혈액, 간기능, 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 신장기능, 전해질, 당뇨(공복시혈당, 당화혈색소), 매독, 에이즈, 종양표지자(간암,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남], 난소암[여], 유방암[여], 고지혈증, 요산, 갑상선기능, 소변, 식생활평가, 류마티스인자, 복부초음파, 위내시경, 액상자궁경부암검사[여], 유방촬영[여], 여성호르몬[여]

휴람 남성 검진프로그램

프로그램	검사항목	검진가
휴람 남성 종합검진	[휴람기본항목] + 대장내시경(수면), 전립선초음파, 저선량 폐MDCT	1,071,000
휴람 정밀 종합검진	[휴람기본항목] + 대장내시경(수면), 전립선초음파, 저선량 폐MDCT + 뇌MRA, 심장초음파	1,836,000
휴람 VIP 종합검진	[휴람기본항목] + 대장내시경(수면), 전립선초음파, 저선량 폐MDCT + 심장초음파 + 복부골반MDCT, 경동맥초음파, 갑상선초음파, 비타민D, 골밀도 + 뇌MRI&뇌MRA, 동맥경화도, 남성호르몬 *픽업서비스(서울시내)	2,979,000
휴람 VVIP 검진 (2일간 진행)	[휴람기본항목] + 대장내시경(수면), 전립선초음파, 저선량 폐MDCT + 심장초음파 + 뇌MRI&뇌MRA, 복부골반MDCT, 경동맥초음파, 갑상선초음파, 관상동맥 CT + 비타민D, 골밀도, 동맥경화도, 남성호르몬 + 뇌, 심장 정밀혈액검사, PET-CT(암정밀검사) *픽업서비스(서울시내)	4,622,550

휴람 여성 검진프로그램

프로그램	검사항목	검진가
휴람 여성 종합검진	[휴람기본항목] + 대장내시경(수면), 자궁초음파, 유방초음파	1,098,000
휴람 정밀 종합검진	[휴람기본항목] + 대장내시경(수면), 자궁초음파, 유방초음파 + 뇌MRA, 심장초음파	1,863,000
휴람 VIP 종합검진	[휴람기본항목] + 대장내시경(수면), 자궁초음파, 유방초음파 + 심장초음파, 골밀도, 저선량 폐MDCT + 뇌MRI&뇌MRA, 복부골반MDCT, 경동맥초음파, 갑상선초음파 + 동맥경화도, 비타민D, 인유두종바이러스 DNA *픽업서비스(서울시내)	3,204,000
휴람 VVIP 검진 (2일간 진행)	[휴람기본항목] + 대장내시경(수면), 자궁초음파, 유방초음파, 관상동맥 CT + 심장초음파, 골밀도, 저선량 폐MDCT + 뇌MRI&뇌MRA, 복부골반MDCT, 경동맥초음파, 갑상선초음파 + 동맥경화도, 비타민D, 인유두종바이러스 DNA + 뇌, 심장 정밀혈액검사, PET-CT(암정밀검사) *픽업서비스(서울시내)	4,847,550

휴람 특화 검진프로그램

특화 프로그램	검사항목	검진가
휴람 뇌건강 검진	혈액검사(당뇨, 고지혈증, 뇌정밀혈액) 경동맥초음파 + 뇌MRI & 뇌MRA + 알츠온 혈액검사 + 도파민 PET-CT	2,562,000
휴람 치매 검진	알츠온 혈액검사 + 뇌MRI & 뇌MRA & 해마 + 아밀로이드 PET-CT	2,230,000
휴람 심혈관 검진	혈액검사(당뇨, 고지혈증, 심장 정밀혈액) + 심전도 + 동맥경화도 + 경동맥초음파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CT	903,000
휴람 유전자검사	뇌질환유전자5종, 심혈관 5종 유전자검사 ※ 치매/심혈관검진 첫 시행 시 필요	각 132,000



미주워싱턴 본부장
에스더 나

Tel : 206-779-5382 이메일 : skgid7700@gmail.com



* 숙박필요시 병원인근숙소 제공 - 제휴 혜택 특별가 제공

교육칼럼

자녀와의 관계 회복-자신을 먼저 돌아보기



민명기

eWay 학원 원장

지난주에 이어 이번 칼럼에서도 부모님들이 우리 십대 자녀들과 대화에서 적용할 수 있는 요령들 몇 가지를 소개한다. 워싱턴 포스트가 '부모들이 자신의 십대 자녀들에게 범하는 일곱 가지 실수'라는 기사를 게재해 지난주에 두 가지를 이미 소개드렸고, 오늘도 필자의 번역과 해석을 가미해 다음 두 가지를 소개한다.

준비 운동으로, 얼마 전 각종 미디어에서 소개된 '조지아 대학 커플 및 관계 강화 연구소'의 연구 결과 역시 이번 칼럼의 내용과 연관된다고 생각되어 먼저 잠깐 살펴본다. 연구진에 의하면, 우리말로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되는 'Mindfulness (지금의 자신에 집중해 생각·감정·신체 감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며 좋고 그릇으로 평가하지 않음)'을 실행하면 우리들의 관계 만족도와 관계 향상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한다. 즉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들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기에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다. 감정이 격해질 때, 잠시 멈춰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스트레스의 원인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 반응을 줄이고 의사

소통을 보다 명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기독교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 자기를 돌아봄'으로도 표현되는 이러한 마음가짐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나 대화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태를 돌아보는 것과 같은 걸러내는 행위를 거치면 충돌을 피할 수 있고 사랑하게 된다는 이치와도 통한다 하겠다.

다시 지난주의 주제로 돌아가면, "아니, 우리 아이가 사춘기(思春期)가 왔나 봐요. 봄은 왔는데, 지원 대학들에서 좋지 않은 소식만 오니, 마음이 많이 상하긴 하겠지만, 결핍하면 화를 내며 대들지를 않나,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필자를 찾아오신 한 부모님께서 하소연을 하신다. 위로 겸, 사춘기 아이와 곧 어머님께도 다가올지 모를 사춘기를 연관시켜 말씀을 드린다. 왜 하나님은 자녀가 10대의 사춘기를 그칠 때쯤에나, 부모의 50대 전후에 사춘기(思秋期)인 갱년기를 주시는가를 생각하니 참 타이밍이 오묘하다는 생각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 둘이 겹치지 않으니, 즉 부모에게 힘과 열정이 아직 남아 있을 때 사춘기 자녀가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으니 말이다. 다음엔 교대로 부모님이 사춘기를 잘 극복하도록 자녀가 힘이 될 터이고, 춘하추동 우주의 질서가 참으로 오묘하지 않은가? 그러나 춘과 추 사이에는 찌는 듯 무더운 여름과 혹독한 추위의 겨울이 있듯,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기에, 워싱턴 포스트가 '부모들이 자신의 십대 자녀들에게 범하는 일곱 가지

실수'에서 제안하는 방법들을 시도해 보시라: 십대 자녀와 대화하는 것이 힘들고 의무감에서 억지로 합니까?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네'라면, 자녀는 이것을 당연히 알아차리고 상처를 받는다. 십대 아이들은 자기를 가르치려 하고 억지로 고역을 치르듯 대화하는 어른을 질색한다. 대화가 훈계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듀피의 권고 한마디, "대화가 가끔은 고역이나 훈계, 또는 부모가 마음에 안 드는 자녀의 행동에 관한 이야기가 가미될 수도 있지만, 주된 논의의 초점은 대화를 통해 서로 나누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며, 웃으며 마음을 나누는 것이어야 한다." 사춘기 청소년 상담 전문가인 마리아 코일의 지적처럼, "당신의 십대 자녀를 위해 곁에 있어 주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이야기하며,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는지를 알아차리며, 그들을 격려하고 어깨를 다독여 주는 것은 자녀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끊임없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 십대들의 삶에 부모의 역할은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 가정 교육이라는 힘든 일은 아직도 우리 십대들에게 필요한 것이며, 이 나이 자녀들의 삶에 부모의 의도적이고 자발적인 개입은 어느 때보다도 더욱 중요하다는 말이다. 이러한 태도로, 지난 칼럼에서 소개한 스마트폰 사용법에 대해 자녀와 진중한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이 어떠신가? "네가 잠을 푹 자는 것이 굉장히 정신 건강에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니, 오늘 저녁에는 한 번 셀폰을 거실에 두고 자는 것이 어떻겠니?"라고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화를 시작해 보시라. 자녀의 반응이 처음부터 긍정적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몇 번 자녀가 이를 시도하고 나서 오랜만에 잠을 푹 자고 나면 자신에게 유익이 됨을 확실히 깨닫게 될 것으로 믿는다. 십대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원하시는 액티비티를 하도록 강요합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품은 열정을 따르도록 허락해 줍니까? 몇 년 전 미국 교육계를 강타했던 동양식 '타이거 맘' 이야기의 저자인 에이미 추아 교수는 "자녀에게 절대로 액티비티를 선택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고 회고했는데, 우리네 정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와는 달리, 코일에 따르면, "이때는 사춘기의 십대들이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 시기입니다: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 걸까?' 이러한 질문과 탐구를 위해 이해하는 마음과 만반의 지원을 제공해 주는 것이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 일이다." 부모의 희망과 꿈을 자녀에게 무차별하게 투사해 그것을 반영하도록 자녀에게 원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에 책임감을 갖고 자녀 자신이 행하도록 돕는 것이 옳다. 하지만, 만약에 자녀가 원하는 것이 없을 경우에는 부모가 판단해 자녀에게 맞는 일을 권해 주는 것도 방법이다. 이 모든 과정에 앞서 가야 할 것은 물론 부모님 자신의 현 상태를 돌아보시는 것이리라 (www.ewaybellevue.com).



큰 뜻과 보람으로 일하기 원하십니까? 대한부인회 간병인(Caregiver) 모집!

경쟁력있는 임금 \$22.63-\$26.97

좋은 베니핏 - 의료보험, 유급휴가
자유로운 근무 시간 - Full Time, Part Time
근무중 자동차 운행비 지급
경력, 자격증 소지자 우대

KWA 본사와 지부에서 신청서 접수와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253)535-4202 / www.kwacares.org/careers



〈타코마〉 실비아 리 (253)319-8646 sli@kwacares.org, 김혜연 (253)319-8652 hykim@kwacares.org
〈린우드〉 리나 정 (425)790-3565, (253)302-0202 Ichong@kwacares.org
〈헤더럴웨이〉 이경주 (253)656-3458 klee@kwacares.org, 송영정 (253)656-3445 ysong@kwacares.org

박상원목사의 동족선교칼럼



박상원 목사

기독교동족선교회 대표

우리는 누구의 죄를 고백하는가!

곧 3·1절 107주년을 맞는다.

미주와 유럽, 아시아 곳곳의 해외 한인 사회에서 한반도의 분단 현실을 성찰하는 6일간의 릴레이 금식기도가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 이 기도에는 구호도, 정치적 주장도 없다. 그러나 오늘의 디아스포라에게 던지는 질문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얻은 것이 감사할 뿐이다.

“우리는 무엇을, 그리고 누구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가.” 해외에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분단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고, 과거의 비극은 조상들의 몫이었다고. 그러나 성경은 역사를 그렇게 단절해 정리할 수 없다고 증언한다.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던 '다니엘'은 자신의 경건이나 무고함을 변호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담담히 고백한다. “우리는 범죄하였고 패역하였으며... 주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단9:4 이하)

이 기도에서 ‘우리’는 다니엘 개인의 죄를 넘어 조상 대대로 이어진 공동체의 배반 전체를 포함한다. 그는 타인의 죄를 역사적 설명으로 남기지 않고, 자신의 현재적 책임으로 끌어안았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이끈 느헤미야 역시 마찬가지다. 페르시아 왕궁이라는 안전한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느 1:6이하)

이 고백에는 분명한 신학적 전제가 있다. 공동체의 죄는 시간이 흘렀다고 소멸되지 않으며, 회개되지 않은 역사는 다음 세대의 책임이 된다는 인식이다.

오늘의 해외 디아스포라는 이 두 인물과 놀라울 만큼 닮은 자리에서 있다. 우리는 분단을 결정할 세대는 아닐지라도, 그 결과 위에서 자유와 이동, 안전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이 역사 앞에서

관찰자인가, 아니면 중보자인가.

필자 역시 전통적인 장로교 배경에서 출발해 미국浸信회교육과 병원 원목 사역을 거치고, 현재는 북한 동족과 탈북민을 섬기는 디아스포라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다니엘과 느헤미야의 기도가 개인의 경건을 넘어, 갈등과 상처로 얽힌 공동체의 죄를 대신 끌어안는 중보의 실천임을 몸으로 배워왔다. 선교 현장은 늘 이상적이지 않다.

세대 차이, 문화 차이, 기질과 성격의 차이가 같은 사명을 가진 이들 사이에서도 깊은 상처와 오해를 남긴다. 그러나 중보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 자신의 책임이 아닌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대신 들고 서는 태도 말이다.

이번 릴레이 금식기도가 의미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 기도는 누군가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서 있는가”를 묻는다. 이념이나 거짓의 힘이 아니라, 인내

와 용서, 회개의 자리에서 역사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

3·1운동이 남긴 가장 깊은 유산은 독립이라는 결과 이전에 “우리는 누구인가?”를 묻는 양심의 질문이었다.

107년이 지난 지금, 해외 동포사회의 조용한 금식과 기도는 그 질문을 다시 오늘의 언어로 되살리고 있다.

분단을 끝내는 힘은 언젠가의 협상 테이블이나 선언 이전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역사 앞에서 어떤 태도로 서느냐에서 시작될지도 모른다.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자신의 죄가 아닌 죄까지도 자기 것으로 동일시하는 중보의 자리에서 말이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방백들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하심이 있사오니...”(단9:8~9)

부자 세금 걸었더니... 시애틀이 이렇게 부유할 줄이야

시애틀 새 시장 케이티 윌슨이 지지자들 앞에서 한 말은 좀 거칠었다. “이 도시는 더럽게 부자야.” 사람들은 웃었다. 시장이 저런 말을 해도 되나 싶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발표된 숫자를 보니, 그녀 말이 틀리지 않았다. ◆예상을 훌쩍 넘는 세금 시애틀시는 작년에 새로운 세금을 만들었다. 공공주택을 짓기 위한 돈을 마련하려고, 연봉이 100만 달러(약 14억 원)가 넘는 사람한테 5%를 더 걷기로 한 것이다. 처음엔 이 세금으로 1년에 5000만 달러 정도 걷힐 거라고 봤다. 시 재정부가 꼼꼼히 다시 계산했더니 6580만 달러로 올라갔다. 그런데 여기서 걱정이 생겼다.

“이런 세금 만들면 회사들이 시애틀을 떠나지 않을까?” 시 의회 보고서는 “기업들이 직원들을 시애틀 밖으로 옮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며 세금이 3920만 달러에서 8000만 달러 사이로 걷힐 거라고 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1억1500만 달러가 걸렸다. 예상보다 75%나 많았다. 최고 예측치보다도 44%나 높은 금액이었다. ◆상상보다 훨씬 많은 부자들 이번 일로 확실해진 게 하나 있다. 시애틀 부자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부자라는 것이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다. 부자들에게 세금 걸

겠다고 할 때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아무리 많이 걷힐 거라고 예상해도,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걷힌다. 주 전체에서 주식으로 큰돈 번 사람들한테 매기는 세금이 있다. 첫해에 예상의 3배가 걸렸다. 시애틀에서 먼저 만든 다른 고액 연봉 세금도 예상보다 48%나 많이 걸렸다.

여기 도는 돈의 규모가 전문가들도 감을 못 잡을 정도다. 또 하나 확실한 건, 회사들이 안 떠났다는 것이다. 사실 이 세금은 피하려면 피할 수 있다. 근무 시간의 절반만 시 밖에서 일하면 된다. 예를 들어 호수 건너편 벨뷰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하면 그만이다. 연봉 110만 달러 받는 사람 경우, 회사가 내야 할 세금은 5000달러다. 이 정도 돈 때문에 직원을 다른 데로 보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연봉 1000만 달러 받는 임원은? 세금이 45만 달러다. 3000만 달러면? 145만 달러나 된다. 작년에 어떤 기자가 이런 글을 썼다. “아마존이 최고 경영진을 일주일에 3일만 헬리콥터로 벨뷰까지 태워다 주는 게 더 싸게 먹힐 것 같은데?” 하지만 아마존은 그렇게 안 했다. 실제로 시애틀에 있는 170개 회사가 이 세금을 그냥 냈다. ◆부자들의 탈출, 과장된 얘기? 그럼 부자들이 세금 때문에 정말 떠나는 걸까? 지난주 주 의회에서

‘백만장자 소득세’ 청문회가 열렸다. 레드먼드에 사는 헤지펀드 매니저 브라이언 헤이우드가 증언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50쌍의 부부가 이미 이주를 떠나고 있거나 곧 떠날 예정입니다.” 그 자신도 캘리포니아 세금이 싫어서 워싱턴 주로 온 사람이다.

50쌍이나 된다니 꽤 많다. 요즘 뉴스를 보면 부자들이 떠난다는 얘기가 가득하다. 하지만 누군가는 여기 남아서 세금을 내고 있다.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걷히고 있으니 말이다. 시애틀 기술업계 임원 한 명이 입을 열었다. ‘시애틀 탈출’ 얘기는 과장이라는 것이다. 시애틀에서 AI 벤처투자를 하는 제이콥 콜커는 이렇게 썼다. “숫자가 안 맞는다. 세금 정책을 신중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건 맞다. 세금 쓰는 것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도 맞다. 하지만 법 하나 만들면 시애틀이 망한다고 난리 치는 건 제대로 된 분석이 아니다.” 세금은 적당하면 통한다. 5% 같은 한 자릿수는 견딜 만하다. 부자들도 “짜증 나긴 한데, 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정도는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금까지는 다리만 건너가면 되는데도 그럴만큼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극단적인 세금은 다르다. 민주당이 작년에 초부유층 유산세를 35%까지 올렸다.



사진=김승규 기자 케이티 윌슨 신임 시애틀 시장

1200만 달러 넘는 재산에 붙는 세율이 너무 높다.

일부 부자들이 실제로 워싱턴주를 떠나고 있다고 한다. 그럴 만도 하다. 사람들을 너무 쥐어짜면 좋을 게 없다. 이 세율이 너무 높아서, 민주당이 이제 다시 예전 세율인 20%로 되돌리는 법안을 내놨다. 핵심은 이것이다. 의원들이 적당히만 하면, 부자들도 그냥 낸다. 시 재정 전문가들은 이 세금이 들쭉날쭉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고액 연봉은 주식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마존 주가가 최근 2주 동안 5000억 달러 가까이 빠졌다. 이렇게 많은 세

금이 계속 걸릴지는 모르는 일이다. 지금으로선 이 돈으로 사회주택 기관이 빚을 줄이거나, 저렴한 집을 더 빨리 사거나, 둘 다 할 수 있게 됐다. 도시한테 좋은 일이다. 이 기관이 지금까지 일을 잘 못했는데, 이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시애틀이 “더럽게 부자”라는 말, 시장이 할 말로는 좀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케이티 윌슨이 시장 되기 전에 쓴 칼럼 제목이 “더럽고 악취나는 부자들에게 세금”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표현을 좀 순화한 셈이다. <시애틀코리아데일리>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레지나 채

킹카운티 멘탈 헬스 카운슬러

아들이 택한 길(2)

(지난 호에 이어)
어느 날 아들은
엄마
나 학교로 다시 돌아 안 가요.
작은 내 눈이 엄청 커진 날.
왜?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재미 있어요.
남편과 나는 마주보며 아이쿠!
이제 의사의 길은 물 건너갔네!
아들이 스토어 매니저로 일할 때 나는 아들
에게 당부했었다.
아들
너는 일하는 사람보다 수입이 더 많으니 일
하는 직원들을 잘 보살펴 주고 직원들 경조
사도 네가 챙겨 주렴.
아들
엄마, 물론이죠! 모두들에게 잘해 주려고
해요.
그래, 잘한다.
남편과 나는 이제 매니저가 되어서 월급이
올랐으니 다시는 물리치료 의사의 길은 막
혔구나!!라는 생각에 시름에 빠져 있는데
아들이 하는 말

엄마, 내가 의사가 되려면 많은 빚을 안고
살아야 해요.
그리고 나는 그 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
아요.
아마도 빚이 거의 백만 불가량 되겠죠.
그런데 엄마, 지금 내가 의사보다 인컴이 더
많아요. 그러니 엄마도 생각을 바꾸세요. 내
가 다시 공부한다는 생각은 접어 두세요.
아이쿠!
그럼, 왜 대학은 간 거야?
아예 애초부터 중학교나 고등학교 졸업하
고 조리학과를 가든지 아니면 아예 그 길로
식당에서 몸으로 익히면서 경험을 쌓던가?
아들의 눈이 커지면서
엄마, 우리 솔직히 말해 볼까요. 내가 그때
엄마에게 식당 쪽 일하고 싶다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겠지요!
아들은 싱긋이 웃으며
엄마, 나도 더 살아야 하잖아요.
아하, 그랬던가!!!!
아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직원들 60명을 잘
통솔하면서 레스토랑에서 바스보이, 청소
웨이터, 스토어 매니저로 일을 하는데 자기

의 식당 쪽 진로에 결사 반대하던 우리 부부
는 절대로 레스토랑에 초청을 하지 않았다.
아들이 식당에서 매니저로 근무하길 2년 반째
아들이 엄마, 나 이번 주에 인터뷰해요?
혹시나 아들이 학교로 다시 돌아갈까나 하
는 바람에 솔직한 내 귀에 아들이 하는 말
엄마, 내 일하는 레스토랑에서 총괄 매니저
를 뽑는데 회사 대표(미국계 대만 사람)가
나보고 꼭 서류 접수하라고 하네요.
현재 3명이 신청했는데 한 명은 나하고 함
께 일하고 있는 7년 된 경험자, 다른 한 명
은 9년째 매니저로 같은 계열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아들의 얼굴은 희망적이고 나의 얼굴은 절
망의 그림자로 칙칙해지고, 몇 주 후 아들이
총괄 매니저 인터뷰에서 두 선배님들의 경력
을 뛰어넘어서 서부 지역에 19개의 매장에
총괄 매니저로 일하게 되었다고 알려왔다.
그 이후로 아들은 시애틀의 4개의 레스토랑,
오레곤 지역 다운타운 지역에, 밴쿠버 캐나
다 다운타운 지역에, 캘리포니아 디즈니랜
드 안에 새로 레스토랑을 오픈하러 그곳으
로 출장 가 6개월 지내고, 외국으로 이곳저

곳 비행기 타고 다니며 일을 하면서도 피곤
해도 행복하다고...
이곳 내가 무릎 치료차 내려와 있는 오렌지
카운티 어바인 캘리포니아 스펙트럼 몰에 와
서 호텔에 머물면서 새로운 200명 직원 인터
뷰 마치고 직원 훈련 3개월 후 시애틀 집으
로 돌아갔다 다시 애리조나주로 레스토랑
을 오픈하러 간다고 한다.
오늘은 아들이 그동안 아들이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시작을 결사 반대했던 우리를 스펙트
럼 몰 안의 레스토랑으로 초청해서 이 레스토
랑의 모든 메뉴를 주문해서 맛을 보게 한 날.
아들의 레스토랑은 모든 음식이 먹기에 편
안하고 특별하게 맵거나 짜지 않아서 먹고
나서도 위에 부담이 없는 음식,
레스토랑 분위기가 럭셔리하고, 3개월간 훈
련받은 직원들의 서빙은 100% 성실과 최선
을 다해서 고객을 접대하고, 어젯밤 아들이
무릎 치료차 따뜻한 곳에 와 있는 우리 가
족과 친구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맛을 보게
하는 것을 보니 아마도 결사적으로 아들의
레스토랑 진출을 막으려 했던 우리 가족들
에게 마음을 열고 선심 쓴 날.

안정된 회사, 유능한 전문가와 함께라면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쉬어집니다.

- IRA / Roth IRA / 401(K) *
- 뮤추얼 펀드 / Brokerage Account *
- 평생연금 - Annuity **
- 은퇴계획 - Retirement Plans
- 상속계획 - Estate Planning
- 개인&비즈니스 생명보험- Life Insurance for Personal & Business
- 간병보험 - Long Term Care
- 생명보험을 활용한 학자금 플랜-College Funding using Life Insurance

* products offered through Registered of NYLIFE Securities LLC (Member FINRA/SIPC), a Licensed Insurance Agency and a New York Life Company.
** Issued by New York Life Insurance and Annuity Corporation, a wholly owned subsidiary of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The Million Dollar Round Table (MDRT), The Premier Association of Financial Professionals, is recognized globally as the standard of excellence for life insurance sales performance in the insurance and financial services industry.

2024



178년 역사의 뉴욕라이프 성공 노하우를 전해드립니다.

김수현 (BILL "SUHYUN" KIM)

Registered Representative *(Financial Services Professional)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Agent

Mobile 253 802 2550

* Registered Representative offering investments through NYLIFE Securities LLC, (Member FINRA/SIPC), A Licensed Insurance Agency.

The offering documents (policies, contracts, etc.) for all New York Life and its subsidiaries products are available only in English. In the event of a dispute, the provisions in the policies and contracts will prevail.
뉴욕라이프 및 그 자회사들이 제공하는 모든증권 계약서는 영문약관으로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는 증권과 계약서의 각 조항이 우선합니다.

Insure. Prepare. Retire.

Be good at life.



종교칼럼



저자 나은혜

광야로 쫓겨난 아사셀 양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히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레 16:8)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 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레 16:10).

레위기 16장은 이스라엘의 대속죄일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온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날이다. 두 염소를 뽑아 제비뽑기를 하여 여호와를 위한 양으로 뽑힌 양은 죽여서 그의 피를 지성소에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 받게 하는 것이고, 아사셀을 위한 것으로 뽑힌 양은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끌고 가서 풀어주는 것이다. 거기서 방황하며 살아야 한다. 예수님은 여호와와 염소로 택함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알았고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를 썼다. 그의 유대인의 아내가 꿈을 꾸고 남편에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 살려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유월절 명절 특사(特

赦)로 예수와 바라바 중 “누구를 택할 것인가?”라고 백성들에게 물었다. 곧 제비뽑기를 한 것이다.

빌라도는 흉악한 강도였으니 당연히 예수님을 택할 것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살릴 지혜를 냈는데 백성들은 제사장과 장로들의 충동으로 오히려 바라바를 택하였다.

빌라도는 이 피를 너희와 너희 후손이 당하라고 나는 이 피에 대해 무죄하다고 물 떠온 대야에 손을 씻었고 백성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라고 아우성쳤다. 그러나 후대 사람들은 계속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소서”라고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있다. 우리의 자손이 빌라도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 자리에 섰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의의 길을 지켜야 하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살려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라고 겁박하고 아우성치는 백성들 앞에서 정의를 지킬 그렇게 용감하고 훌륭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조상들의 말대로 나라가 망하고 세계에 흩어지고 헝가리 아우슈비치 수용소 가스실에서 처참하게 600만 명이 죽어나갔다.

“너희가 말한 대로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의 말을 나와 자녀들을 위해 조심해야 한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 따라, 성령님이 말하

게 하심 따라 말을 할 수 있도록 조심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때에 잔인하게 죽어간 유대인들의 안경, 가방, 구두 등이 수용소에 아직도 남아 있고 머리칼로 담요를 짜놓는 등 너무나 참혹하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로 돌아가셨지만 그 당시에 제일 예수님 덕을 본 인간은 사형수 바라바였다. 그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당연히 사형을 받아 죽어야만 했는데 그는 제비뽑기에서 악한 사람들이 뽑아준 덕분에 살아서 광야에 버려진 아사셀 염소가 되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지옥이다.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괴롭고 힘들고 마귀에게 복종해야 하는 광야다.

바라바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죽은 것을 깨닫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한 마리의 어린양이 된다면 역전하여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그리고 내가 바라바는 아닌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니 나는 이제 내 육신의 정욕과 자랑과 헛된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는가? 인간은 본래 마귀의 자식으로 욕

심쟁이, 살인자, 거짓말쟁이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악을 행하고 살고 있다. 그래서 세상은 무서운 광야다.

세상이 너무나 헛되고 허무한 인생들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욕심에 가득 차서 온갖 거짓말과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심판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고 하셨다.

나를 살려주시고 광야에서 살게 하신 것은 허랑방탕하고 세상에서 해매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리에 서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잘 전하라고 하신다.

우리는 모두 마귀가 다스리는 광야에서 세상, 돈, 명예,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고 살려고 짧은 인생에서 지옥에 갈 준비만 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애쓰다고 그것들이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말씀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동행하고 이 세상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저 아름다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라고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라고 하신다.

크리스천은 광야에서 외치는, 광야에 놓인 아사셀 양으로서의 사명이 있다. 깨닫지 못하고 짐승같이 멸망 받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살려주시고 사명을 주시니 너무 감사하지 않은가?



레이븐 경비회사/ 레이븐 공인탐정사

현재 호텔/모텔/상가/건물/빌딩 관리에 여러가지 사건 사고로 문제가 있으신가요?

민사 · 형사소송 사건증거수집업무	배우자	종업원
개인 신원조회업무	학력	범죄

레이븐 공인탐정사에서는 24시간안에 사람을 찾아드립니다. 못 찾을 시 의뢰비를 받지 않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해 레이븐경비회사로 연락주세요.
Tel: 253.353.3663 / Web : WFPDICI.com

RAVEN LEGAL TASK FORCE
RAVEN SECURITY ENFORCEMENT AGENCY #858
ARMED SECURITY PRINCIPAL #79760
RAVEN PRIVATE INVESTIGATION AGENCY #2037
RAVEN ARMED PRIVATE INVESTIGATOR PRINCIPAL #4036

워싱턴주, 가정 내 대마초 재배 합법화 추진...2012년 이후 남은 '마지막 금지'

- ▶ 여가용 대마 합법화 24개 주 중 자가 재배 금지는 워싱턴 포함 단 4곳
- ▶ 상원법안 6204호, 성인 1인당 6그루 · 가정당 15그루 허용 추진
- ▶ 경찰단체 "청소년 접근성 우려", 발의 의원 "마약과의 전쟁 잔재 청산해야"



[사진=신문사DB] 워싱턴주가 중범죄로 금지해온 가정 내 대마초 재배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콜로라도와 함께 미국 최초로 여가용 대마초 판매를 합법화한 워싱턴주가 12년 넘게 중범죄로 금지해온 가정 내 대마초 재배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 합법화 24개 주 중 자가 재배 금지는 단 4곳...워싱턴도 포함 대마초 정책 프로젝트 (Marijuana Policy Project)에 따르면 현재 여가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24개 주 가운데 비의료 목적의 자가 재배를 금지하는 주는 워싱턴을 포함해 단 4곳에 불과하다. 워싱턴주에서는 개인 사용 목적의 대마초 재배가 C급 중범죄(class C felony)로 분류돼 있다. 수년간 자가 재배 합법화 법안

을 추진해온 셸리 클로바(Shelley Kloba · 민주당 · 키클랜드) 주 하원의원은 "상당히 과도한 처벌"이라며 "마약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아직 그대로 남겨둔 조각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 1인 6그루 · 가정당 15그루 허용...냄새 · 가시성 위반 시 50달러 벌금 상원법안 6204호는 21세 이상 성인에게 1인당 최대 6그루, 가정당 최대 15그루의 대마초 재배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지난주 상원 위원회를 통과해 핵심 마감 시한을 넘겼다. 재배한 대마초가 외부에서 보이거나 냄새가 이웃 부지로 퍼질 경우 50달러의 과

태료가 부과되며, 탁아 시설이나 위탁 가정으로 사용되는 주거지에서는 재배가 금지된다. 또한 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는 각 시(市)가 주거 지역 내 자가 재배를 자체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돼 있다. 클로바 의원은 이러한 추가 조항이 올해 법안에 더 많은 지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찰단체 "청소년 접근성 우려"...2월 17일 상원 본회의가 고비 반대 측의 우려도 만만치 않다. 워싱턴주 보안관 · 경찰서장협회 로버트 제임스 맥마흔(James McMahan)은 지난달 공청회에서 "젊은이

들에게 대마초가 계속 정상화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증언했다. 일부에서는 냄새 규제와 재배 수량 제한 단속이 지역 경찰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

온다. 법안은 오는 17일까지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올해 회기 내 사실상 폐기된다. 워싱턴주 의회는 3월 12일 폐회 예정이다. <시애틀코리아데일리>

코스트코서 산 일부 외식 기프트카드 '무용지물'

미 전역의 코스트코 매장에서 판매된 일부 외식 기프트카드가 갑작스럽게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Q13 폭스뉴스가 13일 전했다. 한인들도 코스트코 기프트카드를 선물용이나 외식비 절약용으로 자주 이용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소비자 매체 보도에 따르면, 코스트코에서 판매되던 '시너지(Synergy)' 외식 기프트카드를 발행 · 관리하던 업체 시너지 월드가 지난 달 챕터7(Chapter 7) 파산 보호를 신청한 뒤 갑작스럽게 영업을 중단했다. 이

로 인해 해당 기프트카드는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해졌고, 소비자들은 잔액을 사실상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문제의 핵심은 이 기프트카드가 코스트코 자체 상품이 아니라 제3자 업체가 발행한 카드라는 점이다.

소비자들은 코스트코 매장에서 구매했기 때문에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시너지 월드가 카드 발행과 정산을 전담했다. 전문가들은 기프트카드는 "미래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에 해당하며, 발행 회사가 파산할 경우 카드 소지자는 일

반 채권자보다 변제 순위가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즉, 파산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소비자가 잔액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다. 시너지 측은 당초 2월 초까지 카드 사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사용이 급증하자 결국 모든 사용을 중단했다. 현재 미 사용 카드에 묶인 총 금액은 파산 서류가 공개돼야 정확히 파악될 전망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매장별로 대응이 엇갈리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일부 코스트코 매장은 시너지 기프트카드에 대해 환불을 해준 반면, 다른 매장

은 환불을 거부한 사례가 보고됐다. 코스트코 본사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 이번 사태는 "신뢰할 수 있는 대형 매장에서 구매한 기프트카드라면 안전하다"는 소비자 인식을 뒤흔들고 있다. 금융 정보업체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43%가 사용하지 않은 기프트카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잔액은 240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기프트카드의 실제 발행사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제3자 기프트카드는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명절이

나 졸업 시즌을 앞두고 선물용 기프트카드 구매가 늘어나는 한인사회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 단체들은 문제가 된 기프트카드를 보유한 경우 ▲구매 영수증 보관 ▲사용한 신용카드 회사에 분쟁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파산 법원에 채권자로 신고하는 방법 검토 등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편리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은 기프트카드도 발행사의 재정 상태에 따라 위험이 따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교민 소비자들의 보다 신중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조시애틀뉴스>



김용석 (Bruce Yongsuk Kim)

Agent,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Cell. (206) 371-4620

Email. ykim13@ft.newyorklife.com

The offering documents (policies, contracts, etc.) for all New York Life and its subsidiaries products are available only in English. In the event of a dispute, the provisions in the policies and contracts will prevail.
 뉴욕라이프 및 그 자회사들이 제공하는 모든 중저 계약서는 영문약관으로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는 중판과 계약서의 각 조항이 우선합니다.
 SMRU1877550 ©2017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51 Madison Avenue, NY, NY

안정적인 재정을 위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도나 안내서는
필요없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재정관리 및 은퇴를 원하신다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평생연금*
생명보험

은퇴계획
연금보험

상속계획
간병보험

*Issued by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or New York Life Insurance and Annuity Corporation, a subsidiary of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Insure. Prepare. Retire.

Be good at life.



Member FDIC  SBA Preferred Lender



최고의 금융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Bank of Hope SBA 대출*

- SBA 자체 승인 대출기관(PLP Lender)으로 신속한 결정
- 장기 융자기간 제공
(부동산 융자 25년, 비즈니스 융자 10년까지)
- 낮은 다운 페이먼트 부담
(부동산 융자의 경우 최저10%)
- 만기 일시 상환이 아닌 SBA 대출 기간 중 분할 상환 스케줄 융자
-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게는 클로징 비용 대출 가능

*모든 관련 조건 및 약관은 융자진행 및 신용 승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ank of Hope 상업 융자

- 상업융자
 - 상가 & 아파트 구입 및 재융자
- 텀 론(Term Loan) 특징
 - 최장 7년간 분할 상환
 - 융자 기간 내 융자금 전액 상환을 위한 월 고정 납부금 (원금과 이자 합산)
 - 고객에게 융자금 전액 일시에 제공
 - 변동 또는 고정 이자율 적용
- 상업 부동산 융자
 - 상업 부동산 구입 또는 재융자가 필요한 비즈니스 오너에게 가장 적합한 융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강봉수(Brian Kang) Business Banking 본부장 / SVP & PNW Business Banking Regional Director
 Seattle Office (425) 921-1098 Portland Office (971) 801-6275

Top 2% SBA Lender in the U.S. by Volume[‡]



스캔 후 자세히 보기



[‡] Source: SBA national lender rankings for Fiscal Year ended 09/30/2024.